



인·행

동창회보 2011년 가을호 VOL.103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Contents

- 02 경북의대 동창회의 역사
- 04 동창회 소식
- 06 동창회장이 전하는 동창회 소식
- 08 특집 1
제8회 경북의대 동창회 골프대회
- 14 특집 2
54회 졸업 25주년 HomeComing 행사
- 20 동문탐방 - 장년부 최기대(12회) 동문
동문탐방 - 청년부 임영미(51회) 동문
- 28 학교소식
- 30 특별기고
안행대상을 받으며... 강반(31회) 동문
- 33 지부 소식
- 37 동기회 소식
- 46 ISSUE People
경북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한 백운이(44회) 동문
- 47 개인동정
- 50 경조사
- 51 회원문예
- 68 동문이 펴낸 책



2011 가을호

통권 제103호 / 발행인 동창회장 변영우 / 편집인 공보이사 김인겸 / 발행일 2011년 10월 15일
 편집대행 e-포럼 TEL (053)744-8416 FAX (053)744-8418 e-mail azai00@paran.com / DM발송 대동인쇄소

북미주 지부

1956년 2월, 북미주에서는 경북의대 동문들이 모여 북미주지부를 창립하였습니다. 쟁쟁하신 선배님들이 미국 유학 시 젊고 멋진 모습으로 지부를 만들어 사진을 남겼습니다. 안행대상의 수상자가 가장 많은 북미주지부. 높은 학술과 의료봉사로 경북의대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차례입니다.

북미주 동창회 창립 기념 사진



뉴욕 Bellevue병원 정신과 이동식(10회), 내과 박희명(13회), 피부과 서순봉(13회) 동문이 주축이 되어 1956년 2월 11일 '경북의대 동창회 미국지회'를 조직하고, 서순봉 동문(13회)을 회장으로, 서추영 동문(17회)을 총무로 선출하였다.

앞줄 왼쪽부터 서철성(14회) 서순봉(13회), 이동식(10회), 박희명(13회) 동문.
 뒷줄 왼쪽부터 정재홍(16회), 이동식(18회), 서추영(17회), 김태훈(17회), 이흥건(16회), 배수동(19회) 동문.

Bear Mountain으로 간 아우회에서



● 동창회 소식

제1차 상임이사회	2011년 3월 8일	변영우 회장 외 14명	테니스대회, 행운의 밤에 관한 토의
제2차 상임이사회	2011년 4월 5일	지용철 부회장 외 15명	테니스대회 준비
제3차 상임이사회	2011년 5월 3일	변영우 회장 외 17명	테니스대회 일정 및 행운의 밤 진행 방식에 관해 토의
제4차 상임이사회	2011년 6월 7일	변영우 회장 외 17명	행운의 밤 보고 및 골프대회에 관한 토의
제5차 상임이사회	2011년 7월 5일	변영우 회장 외 13명	회비 미납에 관한 토의 및 골프대회 준비
제6차 상임이사회	2011년 9월 6일	변영우 회장 외 15명	골프대회 보고 및 등반대회, 안행대상 준비

제8회 경북의대 동창회 골프대회 개최

2011년 8월 28일, 청도군 이서면 그레이스골프장에서 제8회 경북의대 동창회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총 28개 조가 참가하여 동문들간의 끈끈한 유대를 느낄 수 있었던 이번 골프대회는 장학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발전기금을 쾌척한 자랑스러운 동문들

2011년은 경북의대 54회가 졸업 25주년을 맞은 해로 54회의 흥거밍 행사가 있었다. 경북의대 54회는 이번 흥거밍 행사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모금하여 1억 원을 경북대학교에 의과대학 발전 및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정 기탁하였고 동창회에 5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여 아낌없는 모교사랑을 보여주었다.

제9차 동창저서 전시회 개최

경북대학교 개교기념 연례행사로 5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이틀 간 동창저서 전시회가 열렸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관 2층 서편 제2교수 회의실에서 열린 본 전시회는 우리 대학 동창회, 안행수필동인회, 지역 의역사연구회 및 경북대 동서의학연구회 등의 후원으로 교지 「행운」 편집부(편집장 윤영우/의전원 4년차)가 주축이 되어 역사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이뤘다. 10여 년 동안 재학생들과 총동창회원 및 학외 인사들에게 개방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지역역사연구회에서 대구·경북지역 근대 의학의 도입과 동산의 서양의학 등에 대한 다수의 학술 발표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고 발표하여 방문 관람한 동창 및 재학생들 사이에서 호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컸으며 변영우(42회) 동창회장, 채성철(48회) 경북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과 백운이(44회) 신임병원장의 내방격려는 많은 힘이 되었다. 금년도 동창저서 전시회를 통하여 모교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연구업적이 축적이 되기를 바란다.



안행대상 후보자 추천공고

동창회 안행대상 시상규정에 따라 안행대상 수상후보자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각 지회장, 동기회장, 단체장 및 기관장께서는 안행대상을 수상할만한 자격이 있는 동창회원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동창회 사무실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후보자 자격

동창회원으로서 전 생애를 통하여 의료봉사 또는 사회공헌, 학술연구에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의료계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

시상부문 및 인원

학술연구 부문(1명) /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부문(1명)

신청마감

2011년 10월 31일까지(기한엄수)

접수처

동창회 사무실(박은미 실장 053-420-5114)

구비서류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수상후보자의 이력서 1부
수상후보자의 사진(칼라 명함판) 3매
수상후보자의 업적(관련 증빙자료 포함) 1부
수상후보자의 업적 요약서 1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 변 영 우





자랑스러운 북미주 동창회!

북미주 동창회 총회 참관기 경북의대 동창회 변영우(42회) 회장

● '북미주'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뉴욕 하이아트리젠시호텔에서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북미주 회원 130여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모교 채성철 의학전문대학원 원장님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지난해 총회 중 사고로 골절상을 입으신 이수광 직전회장님께서도 완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운동을 하였고, 올해 안행대상 수상자이신 강반 선생님께서는 지병을 극복하시고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강선배님은 CME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지병을 극복하신 비결(?)에 대해 발표를 하시어 참석한 모든 동문들의 뜨거운 관심과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창열 선배님의 사모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시상을 해주셨으며, 참석 선배님 중 제일 선배이신 김연호(22회) 선배님 내외분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시어 후배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총회 시간에 채성철 의전원장님께서 칠곡의 신축 캠퍼스 건설현황 설명을 하였고, 제가 동창회 장학회에 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재미 동창회 이재철 회장님으로부터 동창회 장학금 28,600불 기증이 있었습니다. 매년 많은 장학금을 내 주신 북미주 동창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임병우(28회)·김옥자(부인) 부부와 여용연(28회)·강반(31회) 부부께서 각각 10만 불의 거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신다는 발표를 하시어 동문들의 열렬한 환호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두 분 선배님 내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동문들이 장학금 대열에 동참하시어 모교 발전의 기틀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동창회 장학금'은 지금

동창 여러분께서 지난해 쾌적해주신 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계좌 장학금을 비롯하여 많은 동문님들이 장학금을 내주시어 올해 총 장학금은 3억 1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 1억 2천만 원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수여되었고, 1억 원은 장학금에 적립하여 기금총액이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학교발전과 학생들 활동 및 관리 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동창회에서는 채성철 의전원장님과 의논하여 장학금 고액기부자의 고마운 마음을 기리기 위하여 모교 교정에 새로운 조형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1억 원 이상 장학금이나 발전기금을 내 주신 동문들의 고귀한 이름을 각명하여 그 고마움을 오래도록 간직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부자 부부의 이름을 함께 각명하여 부부의 명예가 후대에까지 길이길이 빛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신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모두 합한 액수로 선정할 것이며, 부부가 같이 동문일 경우에는 부부를 합산하여 선정하려고 합니다.



● 북미주 동창회 역사

최근 박희명(13회) 명예교수님께서 김인점 공보이사를 통해 귀중한 사진자료를 보내주시었으며, 그것을 동창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 1956년 2월경 처음 북미주 동창회 창립 준비모임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동식(10회), 박희명(13회), 서순봉(13회), 정재홍(16회), 서추영(17회), 이동식(18회), 배수동(19회) 등 쟁쟁하신 선배님들의 미국 유학시의 젊고 멋진 모습을 담고 있어 사진을 보는 순간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안행대상 수상자들의 면면을 다시 한 번 그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9회의 안행대상 수상자 18명 중 학술 부문에서 여덟 분(박희명, 서순봉, 여용연, 오창열, 김재호, 최중식, 이동식, 강반 선배님), 의료봉사와 사회공헌 부문에 지성해 선배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이 북미주 동창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개교 88년의 역사와 8,000여 명의 동문이 배출된 경북의과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명성을 세우는데 북미주 동창회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논거라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북미주 동창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북미주 동창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 외 소식들

안타까운 일은 북미주 동창 지연숙(30회) 선배님께서 총회 며칠 전 갑자기 타계하셨습니다.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조문하였으며 본부 동창회도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어 정중히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히 총회를 준비하신 이재철 회장님, 이봉기 총무님과 사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부에서 보낸 공로패, 시상품, 선물들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북미주 동창회 파이팅!

제8회 경북의대 동창회 골프대회

행사명 2011년 제8회 동창회 장학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한 경북의대 동창회 골프대회
행사일 2011년 8월 28일
장 소 청도군 이서면 그레이스골프장



글 _ 김원섭(48회)
동창회 사업이사

2011년도 경북의대 동창회 골프대회가 8월 28일 청도군 이서면 소재 그레이스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시험 며칠 전부터 오락가락하는 비 때문에 우중시합이 될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조금 무덥기는 했지만 맑은 날씨 속에서, 기별시합 24조와 초청인사조 4조를 포함한 총 28조의 동문들이 푸른 페어웨이를 향해 마음껏 드라이브를 휘두른 상쾌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대회 한달 전부터 동창회 홈페이지에 이번 경기를 공고하였고 각기의 임원들에게 이번 시합을 알려서 선수선발을 의뢰하였으며, 각 기수는 선수선발, 기별지원금 등 준비를 거쳐 제8회 동창회 골프대회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처럼 최고령 기수로 30회 선배님들이 작년명단 그대로 신청을 하였고, 제일 막내팀은 64회로서 총 24조의 선수들이 해당 기수의 대표선수로 열심히 시합에 임했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혼잡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참가선수 모두들 미리 등록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있게 시합을 기다렸고 식전행사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스타트광장에서 변영우 회장님의 환영인사와 함인석 총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멀리 울산에서 작년에도 참가하셨던 최고령 참가선수이신 25회 이정호 선생님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파이팅을 외치며 사진촬영 후 초청인사들의 시타가 이어졌고, 곧바로 벨리코스, 레이크코스, 마운틴코스 등 3개 코스로 각 조별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시합은 작년과 달리 랜덤으로 조 구성을 하여 평소에 안면이 없던 선후배끼리도 서로 얼굴을 익히면



엘리트클럽! 우승한 46회 ▲



울산에서 오신 최고령 참가선수, 25회 이정호 동문 ▲



경북의대 동창회 기별 골프

2011년 8월 28일

그레이스 컨



▲ 골프챔피언과 경북의대 7인의 대표선수들



마운틴 9번 홀에서 굿샷



53회 김숙영 동문



56회 김창희 동문

Good Shot

서 화기애애하게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린 시합결과 46회가 우승, 49회가 준우승, 작년 우승팀인 51회가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명의 챔피언과 7명의 대표선수를 선발 하였으며, 영광의 챔피언 자리는 그로스 75타를 기록한 46회 박우순 동문이 차지하였습니다. 나머지 7명도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 으로 대표선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오후 6시 넘어 뒷풀이가 시작되었고 변영우 회장의 인사 말과 여러 초청인사들의 건배제의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저녁 만찬 중 45회 정만진 정책이사 님의 구수한 입담 속에 각종 개인상 시상식 후 기 별시합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입상한 팀원들 모두 트로피에 따라주는 맥주를 마다하지 않고 별컹 별컹 들이키는 화끈함으로 많은 참가동문들의 박 수에 호응하였습니다. 최덕수 경북대 총동창회장 님께서는 이번 대회를 축하하는 화환도 보내주셨 고, 뒷풀이 장소에도 참가하셔서 고가의 퍼터를 챔 피언에게 직접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챔피언 박우순(46회) 동문과 최덕수 경북대 총동창회장



▲ 초청선수들의 건배

총동창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가 저무는 뒷풀이 장소에서 서로 잔을 기울이며 내년에는 보다 나은 성적을 다짐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찬조를 해주셔서 원활한 대회운영을 할 수 있었음을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리며, 매년 먼길을 마다않고 서울, 부산,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주신 동문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한 번씩 싱그러운 공기도 마시고 필드를 같이 걸으면서 선후배간의 화합도 다지고 동창회 장학기금모금의 활성화도 다짐하는 이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빌며 보다 나은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뒷풀이 모습



2011년 경북의대 골프대회 성적

2011년 경북의대 골프 챔피언 및 대표선수



- 챔피언 : 박우순(46회) 75타
 2위 : 배홍갑(49회) 75타
 3위 : 박노문(43회) 76타
 4위 : 성주경(46회) 77타
 5위 : 조성제(47회) 77타
 6위 : 권오종(51회) 77타
 7위 : 김지성(48회) 78타
 8위 : 서장수(49회) 78타

- 02
1. 함인석(44회) 총장님과 김제형(47회) 대구시의사회장님
 2. 39회 박난규 동문의 건배제의
 3. 골프대회 기별 우승한 46회
 4. 기별성적 준우승의 49회
 5. 기별성적 3위한 51회
 6. 챔피언들 원~샷!



기별성적

- 우승 46회(성주경, 이영환, 박우순, 이창) 234타-4.5=229.5타
 준우승 49회(배홍갑, 김현준, 서장수, 박정태) 234-3=231타
 3위 51회(장내원, 박성민, 권오종, 김태준) 237-2=235타

개인상

- 룡기스트 : 안성열(41회) - 가장 멀리서 오신 선배
- 니어리스트 : 이종근(50회), 최성곤(57회)
- 감투상 : 김정휘(30회)
- 안행상 : 이윤상(44회)
- 베스트드레서상 : 정화선(43회)
- 페어플레이상 : 이구희(53회)
- 동창회장상 : 황정환(54회)
- 병원장상 : 한승세(40회)
- 매너상 : 김창희(56회)
- 행운상 : 이양일(57회)
- 격려상 : 이현석(63회)
- 특별상 : 이정호(25회), 함인석(44회), 백운이(44회), 유완식(45회), 채성철(48회), 최덕수 총동창회장님



찬조명단

1. 경북대학교 총장 함인석(44회) : 천연비누
2. 경북대학교병원장 백운이(44회) : 줄넥타이
3.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유완식(45회) : USB
4. 서울지부장 황보경(45회) : 수건
5. 대구시의사회장 김제형(47회) : 50만 원
6. 효성병원장 박경동(41회) : 52도 어프로치 클럽 2자루
7. 경북의대·의전원장 채성철(48회) : 골프공
8. 경북대 총동창회장 최덕수 : 화환+퍼터
9. 코오롱모터스 대구지점 : 우산

HOME COMING DAY

54회 동기회 졸업 25주년

무려 1년을 넘게 준비해온 우리 동기회의 홈커밍 행사가 몇 달 전 성공적으로 끝났다.

약 1년 전부터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준비위원장의 지휘 아래

1.홈커밍 행사 기금조성 2.모교방문행사 및 사은회 3.부부동반 1박2일 제주도 여행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드디어 행사 날짜가 다가오고 분위기가 최고에 달할 즈음 홈커밍 전야제 행사가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글 _ 최동호 경북의대 54회 홈커밍 준비위원장



2011년 3월 19일 _ 홈커밍 전야제

홈커밍 행사에 참가하는 부부동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를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총회에도 부부동반하기로 하였다. 약 70여 명의 동기부부가 참석하여 기대 이상이었으며, 총회 행사가 끝나고 2부로 홈커밍 전야제 행사가 열렸는데 초대가수도 오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오랜만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부디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져 두 달 남은 행사가 성황리에 열리기를 기원했다.

2011년 5월 20일 _ 모교방문 및 사은회

마침내 1년여 전부터 준비해온 행사가 시작되었다. 수시로 준비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행사기금 납부를 독려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행사 약 한 달 전까지 소재가 파악된 동기들 130명 중 109명이 홈커밍 기금을 납부하여 이자를 포함한 총액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를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1억 원을 경북대학교에 의과대학 발전 및 학생들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지정 기탁하였고, 5천만 원은 올해 처음으로 동창회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하였다. 행사 및 여행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동기





회비에 차등적립하기로 하였다. 행사 당일 3시경 준비위원들이 모여 각자 업무를 분담해서 준비를 하였다. 4시에 모교 약리학교실의 김인겸 동기가 의학박물관 및 강의실, 실습실을 안내하여 옛 추억을 떠올리는 한편 현대화된 시설 등을 둘러보고 후배들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마침내 5시에 모교 중앙강당에서 모교방문 공식행사가 열렸다. 함인석 총장님을 비롯하여 채성철 의전원장님, 변영우 동창회장님, 백운이 경북대병원장님 등 내빈들이 참석해주셨고 이성행 은사님을 비롯한 30여 분의 은사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셨다. 작년엔 사은회 행사가 호텔에서 열렸는데 학교방문 행사에 은사님들의 참석이 너무 적어 올해는 모교에서 사은회도 같이 하기로 하였다. 경북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창회 장학기금을 준비위원장이 총장님과 동창회장님께 각각 전달하였다. 중앙강당에서의 공식행사가 끝나고 정문 앞에서 기념촬영이 있었으며, 중앙잔디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사은회를 시작하였다. 은사님들의 건배 제의와 덕담이 이어졌고 서창식 동기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다. 프로에 육박하는 훌륭한 연주였다. 그리고 은은한 재즈밴드의 연주 속에 식사 및 환담, 그리고 준비한 선물과 기념품을 드리고 아쉬움 속에 사은회 행사가 끝났다. 뭔가 아쉬운 듯 자리를 떠나지 않는 90여 명의 동기와 배우자들을 위해 2차 뒤풀이 장소로 자리를 옮겼다. 모교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해 두어 70여 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오랜만의 만남을 축하했다. 졸업하고 처음 보는 동기들도 있고 은사님보다 나이가 더 들어보이는 동기도 있고 아직 동안인 동기도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에 와야 되는데 자리를 뜰 생각을 안 한다. 12시가 다 되어 끝을 내고 내일 일찍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타지에서 온 동기들은 노보텔에 숙소를 마련해주었다. 이제 하나 끝났네~

2011년 5월 21일 _ 제주도 여행 1일차

아침 일찍 눈을 떠 대구공항에 7시까지 도착했다. 벌써 많은 동기들이 와 있었다.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긴 없는 모양이다. 수속하고 짐도 부치고 180명이 정원인 비행기에

110명 우리 동기 및 가족들이 탔다. 거의 전세기 수준이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홈커밍 행사로는 10년 가까이 중단되어 경주, 무주, 부산으로 여행을 가다가 작년에 53회부터 다시 제주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부부동반을 하지 않고 선배동기들만 80여 명 여행을 갔다.

우리 동기는 과감하게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였고, 120여 명이 이번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 후배인 55회도 제주도에 못 간다니 54회가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제주공항에 내리니 날씨가 좋았다. 4대의 버스와 가이드가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어승생악으로 갔다. 약 40분 가량 올라가니 탁트인 전망이 나타나고 한라산 정상이 보였다. 그리고 제주 시내도 잘 보였다. 기념촬영을 하고 내려와서 점심식사하러 성산포로 향했다. 해물뚝배기로 식사를 하고 우도를 갈 예정이었는데 해무가 있어 가지 못한다고 해서 방향을 돌려 비자림으로 향했다. 울창한 비자림 나무 숲은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섭지코지, 광치기해안을 거쳐 5시 30분 숙소인 해비치호텔에 도착했다. 해비치호텔은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6성급 호텔로 시설이 최고 수준이다. 호텔 앞 해변에 아이리슨등대가 있고 전망이 좋다. 수속을 하고 6시부터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다이아몬드홀에서 만찬 및 기념행사가 있었다. 1인당 7만 원의 고급뷔페 식사와 추억의 슬라이드 상영으로 잠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 했다. 2부 행사는 사회자 진행으로 팀별 장기자랑 시간, 노래 및 춤 등으로 오랜만에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서로 손을 맞잡고 석별의 정을 부르며 아쉬운 제주의 밤은 깊어 갔다. 그래도 그냥 잘 수는 없어서 미리 예약해둔 가라오케로 장소를 옮겨 아쉬운 정을 나누었다. 이제 재미있어지려니 내일이면 또 이별이구나~

2011년 5월 22일 _ 제주도 여행 2일차

벌써 마지막 날이다. 아침을 먹고 다시 일정이 시작되어 제주 올레길 7코스 돌배낭길을 가기로 하고, 골프팀은 골프를 친 후 합류하기로 했다.

이날은 날씨가 바람도 불고 비가 올 것 같았지만, 올레 7코스는 듣던대로 경치가 정말 좋았다. 사진을 찍고 서둘러 일정대로 요트를 타러 갔다. 비용은 좀 들고(6만 원) 한 시간 가량 타는데 낚시도 할 수 있고 잡은 고기로 회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주에 가면 꼭 한 번 타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요트에서 내려 점심 식사하러 중문 뱃장으로 출발. 이후는 송악산으로, 어제의 여흥에 피곤한지 잠을 청하는 동기도 있고 정상에 올라가는 동기도 있다.

구경을 마치고 마지막 식사를 할 늘봄식당으로 향했다. 늘봄식당은 제주에서도 유명한 흑돼지 전문 식당이다. 정해진 일정도 마치고 시간 여유가 좀 있어 술도 마시고 아쉬운 석별의 정도 나누었다. 이제 좀 친해지려니가 이별이다. 오랜만에 만나 겨우 며칠이었지만 예전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는데 다시 각자의 삶터로 돌아가야 한다. 30주년엔 모이는 동기가 절반도 안된다니 이제 만나지 못할 동기도 있을 것이고, 기분이 착잡해진다. 서로 인사하고 부둥켜안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각자 다른지역으로 갈 동기가 하나 둘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빠듯한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 동기들과 즐거웠던 이틀간의 여행,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2011년 9월 현재 _ 에필로그

여행을 다녀온 후 여운이 한동안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떤 동기는 제주 여행의 꿈도 꾸었습니다. 너무 빨리 식어버리니 한편 서운하기도 합니다. 일을 맡아 열심히 일한 뒤라 그런지 한동안 멍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물같은 세월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우리 가슴에 영원한 추억과 긍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축복해주자. 세월의 강을 훌쩍 넘어 그리운 친구들과의 해후를 축하하며 맡은 일에 대한 짜릿한 쾌감을 선사해준 동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도록 수고해주신 준비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서 40주년, 50주년까지 한번 가봅시다. 54회 화이팅!**

사진제공 : 손효돈(54회) 동문

HOME COMING DAY



의학의 귀재에서 명사학자로 변신한

최기대(12회) 동문

글·취재 _ 김인겸 공보이사

이번 호 동문탐방 장년부의 주인공은 최기대 선생님입니다. 동창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기대 선생님은 역사학에도 풍부한 지식을 겸비하고 계시는 의학과 사학계의 달인입니다.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최기대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연세에 비해 아주 정정하십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12회 동기 26명 중 아직 살아있는 이는 총대를 지낸 덕망가 정필수, 의무감을 지낸 육군소장 이대부, 그리고 저 최기대 세 명입니다. 원래 허약해서 굶고 화끈하게 살기보다 가늘게 길게 살고자 했습니다. 재학시절 애독한 톨스토이의 참회록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로 애태우지 마라' 라는 경구를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식도락가에 해주고 싶은 자작시 식탐계(食貪戒)는 '첫 입에 달면 몸에 안 좋고, 첫 맛이 구수하면 씹을 맛이 없고, 맛 좋다고 애용하면 혈관에 병 생긴다. 씹을수록 진액이 구수하면 오장육부가 좋아한다.' 입니다. 한수 더 보탠다면 '이 몸은 부모님이 주신 자가용, 이름은 아버지가 주신 운전사, 차 좋다고 마구 몰면 오래 못 가고, 좋아도 조심해서 살살 부리면 더 오래 간다.' 입니다.

의사로서 무장해제를 당한 후 운동은 나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몇 년은 동백섬 둘레길을 돌다가, 햇볕 좋은 오후에 왕복 3km 고개 오르내리기를 합니다. 공짜로 비타민D도 얻고 운동량도 많습니다. 가기 싫은 날엔 아파트 11층에서 2층까지 한두 번 오르내립니다. 최고 효율의 유산소운동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단에 있어도 손발은 어느새 승강기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한 시간씩 내 방식으로 갖가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고역이고, 아니하면 꺼림칙하고, 하고 나면 종일 개운합니다. 운동 덕분이라기보다는 조상의 DNA 덕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은 아직 없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생들과 같이 학창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동기 69명 중 일본인 43명, 한국인 26명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출신 중학교는 경북중 12명, 경기중 5명, 기타 중학교 8개교에 9명입니다. 일본인 국내파는 대구중 10명, 용산중 1명, 부산중 1명이고, 일본 본토파는 29개 중학교에서 31명으로 본토파가 2.5배나 많습니다. 같은 실습조로는 시라이시, 즈루마루, 李瑛基, 崔基大, 노자기, 金天洙이고, 일본인은 외로운 본토파로 순진한 편이었습니다. 필자의 호적은 일제강점기 때 '후대이 조센진(不逞朝鮮人)' 즉 일본에 반항하는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조센진 가족으로 낙인 찍혀 호적에 적선(赤線) 즉 빨간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실은 작은 아버지가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1학년 때 '경성제대 반제국 동맹사건'에 연루되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31년 11월 4일 구속되었습니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미결수로 약 1년 복역하고, 집행유예 2년 반 선고로 풀려나 나는 일본인과 민족, 사상문제에 대해서는 소심했었습니다. 매를 먼저 맞은 탓일까 해방 후 좌우 이념대결에도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활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실회 장학금 지급. 1971년부터 매년 20만 원 장학금 지급을 시작으로 87년까지 35명에게 500만 원 지급했습니다.(안행 1987 제4집, 484p 참조) 1981년 8월 3일, 250만 원의 기금을 동창회에 기탁했습니다. 부산동창회는 1979년부터 모교와 부산대에 각 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다 60만 원으로 증액했고, 또 해당대학에 재직 중인 동창의 간청으로 1985년부터 고신의대와 인제의대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연간 240만 원씩 1987년까지 지급했습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미미하나 1978년부터 동창회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1990년대 말, 유실회 장학금의 수혜동문 JBK씨는 기금으로 사용해달라며 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지를 더하여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기금으로 받지 않고 본부동창회의 장학기금에 입금하라고 한 일도 있습니다. 사랑받을 후배입니다. 부산동창회 회장을 지낸 분들은 유실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회원은 최기대(12회), 최형곤(25회), 김재수(26회), 정승환(27회), 예학성(27회), 정용국(28회), 이종수(29회), 이채현(31회), 지창준(35회), 박형규(36회) 등 10명입니다. 제가 1980년 회장에 취임하

자 김태환(26회) 부회장(1972~78년 총무, 재무역임, 동창회의 장자방)이 집행부의 Motto를 정하자는 건의를 받고, 역발상으로 '존경받는 선배, 사랑받는 후배'를 내걸었으니 그것이 은연중 동창회의 윤리강령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김태환 선생은 한참 일할 나이에 애석하게도 먼저 갔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80년대부터 '존경받는 선배, 사랑받는 후배'의 윤리강령과 有實정신이 부산동창회의 identity가 되었습니다.

의협신보에 '이것이 의사이다'를 두고, 1967년 7월 17일부터 4회로 연재된 바 있습니다. 내용인 즉 1966년 7월 17일 토요일 밤 2시 반, 이 모(33)의 차녀 김 모(3)의 야간 구급진료를 거부했다 하여 1966년 12월 16일 약식 기소되어 조수와 쌍벌죄로 벌금을 문 바 있습니다. K검사는 모녀를 데리고 내방했으나 조수가 원장이 부재라고 하자 할 수 없이 이웃 다른 골목 의원에서 진찰받고 가다 옆 파출소에 들러 최소아과 원장 부재의 진위여부 조사를 긴급지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형사와 파출소 순경은 집총으로 3시경 의원으로 와 조수를 연행해가서 조서를 꾸미고, 4시 반경 역시 집총으로 의원을 거쳐 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나를 파출소로 연행해 부재를 확인한 조서를 꾸미고 부인 이름으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병원건물과 주택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별채여서 난 몰랐었습니다. 환자는 내 의원에 몇 번 온 단골로서, 7월 19일 서기와 친지를 통해 K검사를 방문하여 인간적인 사과를 올렸습니다. 필자는 벌금을 물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육법전서를 구입해서 케이스 스테디하고, 그의 직권 남용을 결들인 원고를 후생일보에 보냈으나, 군사정부시절 경·검찰에 관한 기사라서일까, 본보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원고가 되돌아왔었습니다. 마침 의협의 기관지인 의협신보가 1967년 3월 21일 새로 발간되자 주저하다 내본 것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후, 1967년 소아과 추계학술대회에서 고려의대 소아과 김영택 교수와, 내 백씨의 대구고보, 경성제대 동창인 대전시 거주 권영도 선생(저에게는 초면인 선배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것이 의사이다'의 기사를 읽었다며, 후학을 격려하시는 수인사를 해주셨는데, 그 감격이 잊히지 않습니다.

제17회 한국화이자 의학연구상 수상. 1981년 4월 21일 授賞者 대한의협회장 문태준. 수상 논문 '영아 두형의 단두(短頭)로 변형(變形)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 필자는 1970년대 한국인의 두형에 관심을 갖고 단두가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이라고 믿고, 3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에 대해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중질인 최재석(1926년생) 고려대 사회학 명예교수가 조선의 가족사, 일본고대국가와 한일 관계, 일본서기 등을 전공하면서 저술한 단행본 20여 책을 애독하다 보니 저절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식민지인 왜백제에서 720년 일본서기를 저술하면서 백제를 멸망시킨 원수인 신라는 물론, 삼한, 삼국을 모조리 일본의 속국으로 기록해 버렸으니, 일본인은 물론 세계 각국의 학자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를 시정하고

자 2011년 3월 Ancient Korean-Japan Relations and The Nihonshoki. Choi Jae-Sok, The Bardwell Press(영국 출판사)를 자비 2,000만 원을 들여 출간하여 세계 각 대학과 도서관에 배부했습니다. 그는 2005년 학자에게 주는 최고상인 3·1문화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퇴 후 내 딱한 생활을 안타깝게 여긴 자식들이 인터넷을 가르쳐주고 디지털카메라도 사줬습니다. 2004년부터는 E-mail을 사용하고, 2006년부터는 가족 글마당인 occiput blog를 개설하여 가족 간의 사랑을 주고받고 합니다. 서로 글을 쓰고, 옛 글과 흠어진 옛 사진을 올리다보니 지금은 606개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최기대를 검색하니 김斗熙(29) 선생이 동창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기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김 선생과 해우(邂逅)한 셈입니다. 내 이름을 치면 내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후배 동문들에게 인생 선배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23세의 유생 이윤곡이 당대 대학자인 이퇴계 선생을 찾아갔다 서로 성리학을 논한 뒤 윤곡이 퇴계 선생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持心貴在 後生可畏'로 응수했습니다. 즉 '내가 가르쳐야 할 것은 이미 자네가 다 갖고 있다네. 후생의 학문과 인품이 두려워진다. 미루어 제가 후배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소.'

필자는 사무실에 출퇴근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내자에 속하는 국제예술문화원에 공간을 얻어, 블로그, 인터넷, 독서, 신문을 읽으며 소일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43년 봄, 의대 본관 앞에서 제 12회 졸업을 기념하며...



환자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는 임영미(51회) 동문

글·취재 _ 김인겸 공보이사

이번호 청년부 탐방자는 임영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구미에서 20년간 개업하시다 지난 겨울, 대구로 이전 개업하셨다. 동창회 정책이사로도 활동하셨고, 지금도 모교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셨다.



구미에서 20년간 개업하시다가 대구로 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작심하셨습니까? 그리고 대구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문의 따고 처음 간 곳이 아산재단 영해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몇 년간 산부인과 과장으로 일하다 남편 친구 소개로 구미에 자리를 잡은 것이 벌써 20년이 됐네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대구로 이사하여 출퇴근한 지도 10여 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체력적인 소모도, 이제는 제 자신의 시간도 필요하고 보고픈 얼굴들도 자주 만나고 싶고 해서 새로운 곳에서 출발해보자고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고민과 두려움 등이 없진 않았지만 이때가 아니면 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왔다지만 20여 년의 공백은 제게 있어 낯선 느낌을 많이 들게 해줍니다. 적응하려면 시

간이 필요하겠지요. 대구에서의 진료도 이제껏 보았던 진료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제가 들어온 곳이 유방전문의 여선생님과 같이 있는 공간이라 여성들에게 보다 편하고 푸근함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이지요. 새로운 시술이나 장비로 운영을 한다기보다 수십 년간 손님들을 대해 왔듯, 찾아오신 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같이 지내보자는 생각입니다. 경영으로는 무리가 있긴 할 겁니다. 근래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피부, 비만, 성형과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으니 말이지요. 지난 20년간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할 때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 같아 참 좋았어요. 여기에서의 진료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하신 것을 보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D의 대명사로 산부인과를 끝는데, 선생님은 산부인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산부인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특히 청소년기에서 노인, 여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도와주고 있는 곳이 바로 산부인과지요. 다른 과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산부인과를 많이 기피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진료를 보고 계시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심이 우러납니다.(제 자랑은 아니에요.) 작년 한 해도 산부인과 문을 닫았던 곳이 상당수 되던데 솔직히 다시 개원하는 저도 모험이지요.

여의사로 28년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따님도 의사를 시킬 건가요?

지나온 날들은 언제나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했던 기억들도 아련히 추억 너머로 떠올리면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고 가치 있는 일들이더군요. 새내기 인턴·레지던트 시절, 갓 배운 어설픈 지식과 좁은 소견으로 멋모르고 봤던 환자들을 생각하면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만, 정말 의사가 되기를 잘 했다는 행복감과 희열감을 느끼는 때도 많았었지요. 힘으로 때우던 인턴시절, 욕창에 걸리신 분을 제 나름대로 정성으로 드레싱해주면서 자그마한 음료수라도 한 병 받으면 그게 그렇게 가슴 뭉클했던 기억도 나고요. 산부인과 1년차, 심한 임신중독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사를 헤매던 분이 어느샌가 회복이 되어 퇴원 후 인사차 왔을 때 너무도 몰라볼 만큼 바뀐 얼굴에 놀랍고 반가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후배님들도 그렇지만 환자를 보면서 힘들어했던 부분을 해결해주고 밝은 얼굴로 찾아올 때면 그때처럼 행복할 때도 없지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노고는 깡그리 사라지지 않던가요? 그게 의사로서의 행복 같아요. 대신 가족들에겐 미안하지요. 엄마로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줘 그게 제일 맘에 걸리네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또 대구로 오게

된 계기 중의 하나인지도 모르겠고요. 요즘의 행복은 달리 없어요. 일상 하나하나 무리 없이 이어나가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딱 무엇을 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구미로 출퇴근하다보니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줄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여의사로서의 매력이 없었는지, 아이들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 개원한 곳이라 의원 내부가 깔끔하고 보라색이 주는 분위기가 중년 여성들에게 좋은 감을 줄 것 같습니다. 진료 내용에 '통합기능의학'이란 용어가 눈에 띄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색의 의미는 잘은 모르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보라색에 호감을 가지고 있더군요. 보라색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상서로운, 고귀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곳을 찾아주시는 한분 한분이 다 고귀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귀하게 대해야지요. 기능의학(functional medicine)이란 개인에게 질병이 생겼을 경우 대부분은 약물적, 수술적 접근으로 질환을 제거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검사를 하여도 뚜렷한 질병이 나타나지는 않으면서 본인은 증상이 있어 힘들 때가 있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이지만 수치가 하한 또는 상한 가까이에 머무는 경우 개인차에 따라 반응도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개인차라는 것이 타고난 유전적 형질, 살아온 환경, 식생활 습관, 여러 가지 환경공해 물질의 노출 등으로 개개인의 생화학적 대사, 생리학적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이런 종류의 불편함을 느끼면 한약이나 침, 뜸 같은 동양의학적인 방법을 해주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생화학적 대사 이상 패턴이나 생리학적 변화를 찾아 분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능의학적 접근이고 이는 질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질병 이전의 상태 즉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영양학적 도움을 받아 최상의 기능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리적 안정과 개인에 맞는 운동을 겸해 보완해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이를 '통합기능의학'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인체의 장기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장기에 순위를 두고 처치해 나가지만 우리 몸은 장기가 따로따로 놀지는 않잖아요. 장기에 해당하는 나무줄기만 볼 것이 아니라 큰 나무 전체를 보가며 같이 도움을 줘야 더 효과가 상승하겠지요. 예를 들어 생리통이 심한 경우 검사 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증상 치료에 준한 진통제나 피임약을 처방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괜찮아서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은 나타나게 되지요. 하지만 개개인의 식생활 습관의 변화나 위에 말씀드린 생화학적, 생리학적 분석검사와 그에 필요한 영양학적 접근으로 다가가면 좋아진다는 것이지요.

바쁜 일상에서 생기는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요?

구미에서 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 정말 손이 많이 갔을 시간이라 개인적 취미생활은 거의 없었고요. 대구로 출퇴근하면서 시간은 뻘뻘했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갈 손이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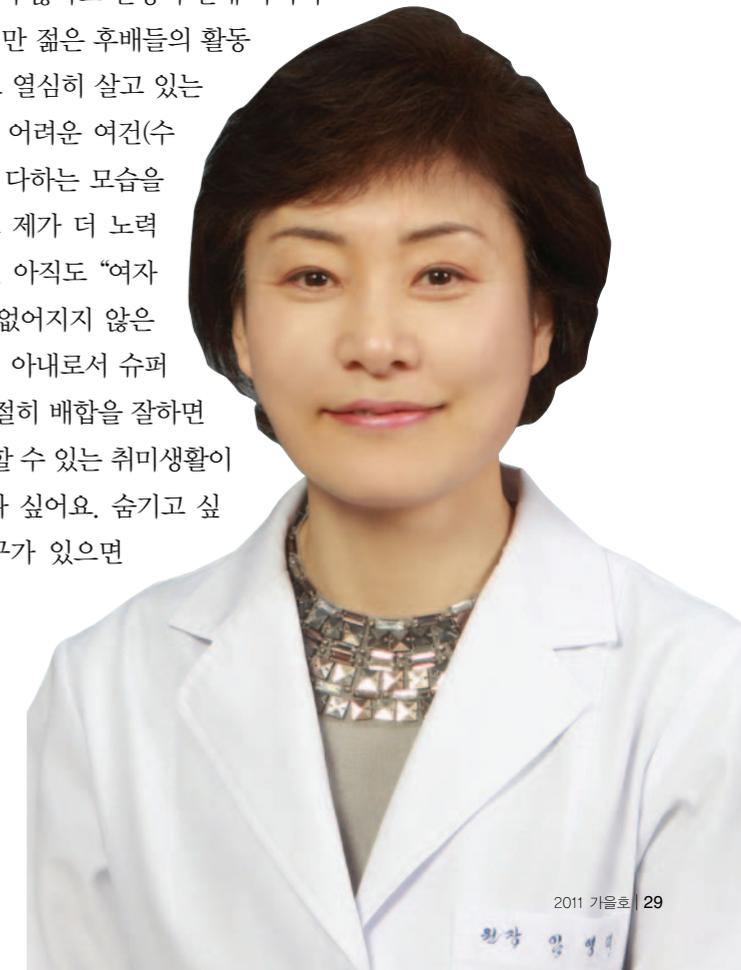
어르고(아니 제가 줄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활용할 수가 있는 데다 좋은 분들을 만나 어설프지만 명상이나 기공, 요가, 태극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친구도 필요하지만 늘 같이 지낼 수는 없으니 자신만의 시간을 멋지게 보낼 취미는 있다고 봐야겠지요. 또 이런 도움으로 절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편안함이 전해졌으면 하고요. 개원하고는 벌써 자신의 사생활을 터놓은 분들이 생겼답니다.^^ 그게 제 삶의 채찍이 되겠지요.

동창회가 동문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저 찢리라고 주시는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참여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지요. 우선은 동문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의지가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동기들과의 유대가 활성화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홍보도 잘 되어야 하겠고요. 솔직히 한참 엄마 손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거나 가정의 일에 매이는(?) 여의사들에게는 외부 모임 참석이 쉽지는 않더군요. 물론 조화롭게 하시는 지혜로운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었지요.

여의사 후배들에게 선배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후배님들보다 먹는 밥그릇 수가 더 많다고 인생의 선배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젊은 후배들의 활동이나 역량을 보면 각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저희 때보다 더 어려운 여건(수적으로나 질적으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언을 주기보다도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직도 “여자는...” 운운하는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사회인지라 여자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슈퍼우먼의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적절히 배합을 잘하면서 지내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틈틈이 해두면 좋겠다 싶어요. 숨기고 싶은 속마음마저도 털어놓을 친구가 있으면 금상첨화이겠고요.





● 2011년 8월 13일, 의학전문대학원 중앙강당에서는 경북의대 동창회의 작은 행사가 진행됐다. 후학양성을 위해 십시일반 장학금을 준비해온 동창회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전달했던 것. 변영우 동창회장과 채성철 의전원이 의전원 학생 24명에게 1억 원(인당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변영우 회장은 우리의 후배들이 좋은 의료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선배들의 바람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이상계(28회) 전 동창회장과 노영하(25회) 동문은 참석 학생들에게 장학회의 역사와 인술을 베푸는 의료인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외에도 안기영(50회, 장학이사), 김인겸(54회, 공보이사), 박태인(57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 경북의대 동창회 장학회는 1987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23년 동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는 2010년 1인 1계좌 장학기금 모금액 138,874,937원 중 1억을 지급하였으며, 변영우 동창회장은 동문들의 1인 1계좌 장학기금 모금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가 있었으면 하고 이것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_ 안기영(50회) 장학이사

경북의대 동창회 장학생 명단

4학년	김세훈, 김정심, 김형선, 박미경, 박지희, 박현진
3학년	김민지, 김용덕, 박상진, 이승재, 장승원, 정인영
2학년	김 현, 김수현, 설재희, 신수진, 장미소, 정경임
1학년	권은욱, 노희윤, 신웅희, 이광민, 진보현, 최효훈



동창회 장학금 수혜자의 편지

선배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 _ 권은욱
(경북대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 7월 어느 날, 마음이 따뜻해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장학금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입학 전, 저는 의사라는 직업의 숭고한 의미와 지식을 하나둘씩 배워나가면서 새기고,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즐거운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가족 중에 암환자가 많아서 어려서부터 생로병사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자랐기 때문에, 유년시절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그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학부시절 바이오소재공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신소재가 어떻게 인간의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데 활용되어 선진 의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떠한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의학분야의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환자와 부딪히며 활동하고 싶은 꿈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였고, 마침내 경북대학교 의전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한 학기 공부하면서 잠깐 잊고 지냈지만, 처음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절감했던 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이 저와 같이 의학의 숭고함으로 뜻을 함께 하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학생을 수업을 통해 의사로 성장시키는 데 시신기증자의 살신성인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가르침과 선배들의 도움, 그리고 선학들이 축적해온 노력이 어우러지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맹목적이고 끈끈한 협동은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 갖는 특수한 의미 아래 가능한 것이라 느꼈습니다.

동창회에서 마련해주신 장학금 또한 바로 그러한 의미 아래 손을 보태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마음은 장학금으로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면서 가벼워지는 한편, 한없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지난 1학기 열심히 생활한 끝에 받은 성적표를 들고 멘토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동창회 노영하 선배님이 몇 년 전부터 후학양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주셨습니다. 그 분의 아름다운 마음에 부합하는 후배인지 스스로에게 반문해보면 부끄럽기만 하지만, 그 분의 손길이 제 마음 속에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엄중한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명분 아래 예비 의사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금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제게 좋은 기회를 주신 여러 고마운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2학기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안행대상을 받으며...



글 _ 강반(31회) 동문
(2011 안행대상 학술연구 부문 수상자)

감사합니다.

변영우 동창회장님, 학장님, 병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선배님과 후배님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여성 동창회 간부님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흡한 제가 훌륭한 안행대상을 받게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멀리서 본인을 추천해주신 북미주 동창회장 이수광, 또 전 회장 박대선 후배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드리고 또 대상 전형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송구한 마음 가눌 길 없음도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자격을 구비하신 동창님들이 많이 계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도 모교에서 차려주신 이 훌륭한 잔치에 접하니 '감개무량' 해서 잊었다고 생각한 지난날이 알아야 되살아옵니다.

48년 전, 이 날에 본인이 경북의대를 졸업했지요.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꿈 많은 26세 철부지, 겁도 없이 선진의학 배운답시고 단신 미국으로 향했었습니다. 고생길이 무언지 몰라 뛰어난 수련의 생활, 장장 9년 만에 Michigan대학에서 마쳤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내과와 미국 내과 전문의사가 되었고 곧이어 당시 첨단 학문 Allergy/면역학 전문의 시험에도 합격(No. 723)했습니다. 고생은 했어도 진지한 훈련 덕분에 Chicago에서 Academic Medicine(The Chicago Medical School / Mt. Sinai Hospital)을 시작, 또 Rush Medical School에서 가르쳤고 다음에 University of Kentucky로 전근, Tenure Track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2년 명예교수로 은퇴했습니다.

안행대상 전형위원장 이상계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본인이 안행대상을 수상한 최연소자이고 또 첫 여성 수상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위를 둘러보니 여성 교수님들, 또 많은 남녀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고맙다는 인사말만으로 답하기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후배님들의 발전을 고무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본인이 학술연구 부문 대상을 받기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얘기를 가능한 짧게 세 가지 부문으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세 부문을 택한 이유는 우수한 미국 의과대학에서 교수자격평가시에 자주 쓰이는 상투어 'Triple Threats'에서 빌렸습니다. 의과대학 Tenure Track 교수는 의사의 사명인 환자치료, 교수의 사명인 학생지도, 그리고 한 가지 더 과학자의 탐구성과 Originality를 가진 연구 업적들, 이 세 분야에서 다 같이 훌륭한 업적들이 있어야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환자 진료 면

1973년부터 Chicago에서 또 Lexington Ky에서 무수한 Allergy/면역학적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소아에서 노년)까지, 외래, 응급, 병원 환자를 막론하고 진단치료를 해서 회복을 돕고 또 많은 환자들을 정상 life로 복귀시켰지요. 생명의 은인이라 말도 듣고 "개업했다라면 돈도 좀 벌었을 걸..."이라는 말도 들었죠.

의학 교육 면

당시 첨단학문이었던 Allergy/면역학을 전공했기에 수련기가 끝나기가 바쁘게 독창적으로 교육 Curriculum을 작성, 의대 학생들, 수련의들, 일반 의사들에게 강의했고 Consultation Case들로 첨단지식을 주입했습니다. 특히 Kentucky대학에서는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주정부에서 인가받은 면역학 Laboratory를 설립, 운영했고 또 환경 Allergen연구 Center를 설립해서 일반주민 교육에도 공헌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미국에 72개 정도밖에 없던 Allergy/면역학 전문의 Training Program을 독자적으로 개척, ACGME(미국의학교육국)의 인가를 받은 Fellow Training Center를 설치해 교육시켜서 필요한 Allergy/면역학 전문의를 배출했습니다.

Research 면

Chicago에서 수많은 급성/만성 기관지 천식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들의 천식 원인을 포착, 1970년대 중반기에 "바퀴벌레 천식"을 발표했습니다.(문헌상 처음) 당시 기관지 천식 특히, 극심한 천식(대도시에 많음)은 Intrinsic 또한 Idiopathic(이유 불명) Type이라 해서 원인치료를 못하고 증상치료(기관지 이완제 + Corticosteroid 주입)만 되풀이하였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아야 했고, 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는 연속적인 악순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즈음에 본인이 발표한 논문에서 격심한 천식환자들 대부분이 바퀴벌레 Allergen에 양성 피부반응을 보이고 증상이 없을 때 Allergen을 흡입하면 여러 양상의 기관지 수축 반응(Early, Late, Dual and/or Sustained Allergic Bronchospasm)을 보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논문으로 인해서 환경 Allergen의 중요성(특히 low-

income housing에서 사는 천식환자들에게이 알려졌고 또 극심한 천식환자들에게 원인치료의 가능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퀴벌레 혹은 다른 곤충 Allergy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었고, 또 미국 대도시 천식치료와 또 천식아동들을 연구하는 Multi-Center 천식연구가 NIH에서 Support를 받아 활발해졌습니다. 대충 훑어본 본인의 업적들은 미국 대회에서 'Triple Threats'의 조건들을 만족시켰듯이 안행대상의 심사조건에도 다행히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여정을 돌아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마음 속에서도 어떤 때는 자랑스럽다 혹은 경북의대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세 가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바퀴벌레 천식연구

2. Kentucky대학에서 단신으로 처음 설립한 Allergy/면역학 Fellow Training Program과 그 후 Trainee들 모두가 착착 전문의 시험에 통과했을 때

3. NIH의 한부서, General Clinical Research Center(GCRC) Study Section Member로 초빙받아 봉사한 4년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GCRC Section이란 다른 Study Section과는 달라 임원들이 모두 학계에 잘 알려진 학자들이고 또 그들의 역할도 훨씬 중요한 NIH부서입니다. 심사해야 하는 Proposal은 대부분 유명한 대학병원들에서 만들어진 Big Project Grant들이고 Committee Member들이 가부를 의논하기 전에 대표임원들이 대학병원 연구실을 직접 탐방, 검사하고 학장·병원장 이하 해당되는 연구원(P)들이 공식 Presentation을 들고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Study Section Member들과 함께 토론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봉사한 4년간 일도 많이 해야했고 책임도 컸지만 유명 대학병원을 방문함으로 얻는 지식도 많았고 또 훌륭한 학장·병원장들로부터 받은 깎듯한 예우에 접할 때 마음속으로 '경북의대의 딸이 이렇게 컸구나.' 하고 자랑스러웠던 시간들도 기억납니다.

끝으로 제가 학술연구 부문 안행상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저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지혜와 교육 덕입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의 'Tough Love'가 저에게 의지력과 참을성을 심어주셨지요.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할 또 한 사람은 저의 부군, 그의 이끌어줌과 Support에 힘입은 바 큼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 알고보니 그이가 수창초등학교, 부속중학교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도 동창이요, 선배였으니 이끌어주고 도와줌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부소식

부산지부

제공 | 석광호(45회) 동문



봄 등반대회

2011년 5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부산 개금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집합하여 마을버스로 백양산 선암사 입구에 도착, 선암사에서 간단한 회장님 인사와 총무의 등산루트에 대한 설명 후 백양산 정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정상 도착 전, 애진봉에서 단체사진 촬영 후 백양산 정상으로 해서 불응령, 만남의 숲, 어린이대공원으로 내려온 후 회식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등산길이 지체되어 점심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힘들었습니다. 돼지갈비 집에서 삼겹살과 소주, 맥주, 막걸리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회의를 시작하고, 선물로 등산스틱, 등산양말, 상품권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버이날 총무가 정상등반을 욕심낸 결과 동문여러분에게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하였고, 아무튼 많은 동문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석인원 (존칭 생략)

김희교(28회), 이건화(29회), 최명부(33회) 부부, 고경환(34회), 김수길(34회), 지창준(35회) 부부, 박형규(36회) 회장님, 김태곤(38회), 박노삼(39회), 박진현(39회), 장한기(41회), 강신수(44회), 석광호(45회) 부부, 이영주(45회) 부부, 손정환(45회) 부부, 정기묵(45회) 부부, 정준현(46회), 채광수(46회), 이영택(48회), 박창호(49회), 이재성(49회), 허용진(54회) 이상 40명

안행회 원정경기 (안행회는 부산동창회의 골프서를 이룹니다)

2011년 5월 15일, 안행회 원정경기를 경산에 있는 대구컨트리클럽에서 갖기로 하고 아침 5시에 동래전철역에서 출발하여 부산시민회관 앞에서 나머지 회원들을 싣고 버스로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경산인터체인지를 거쳐 대구컨트리클럽에 도착하니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총 스물네 분이 참석하여 6조로 나누어 클럽하우스에서 식사 후 8시 2분부터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대구 날씨 28도로 한여름 날씨처럼 더웠으나 오랫동안 고향에서 경기하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4년 전에 경기한 적이 있었으나 많이 개조하여 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린도 좋아졌고 클럽하우스도 달라졌고 내장객을 위하여 경기코스도 달라졌습니다. 내장객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부산컨트리클럽도 벤치마킹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하면서 여러 장면을 촬영하였지만 서 코스로 라운딩한 분들은

사진촬영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경기 후 씻고 클럽하우스에서 회의를 마친 후 버스로 부산으로 출발하여 4시 30분경에 부산 도착하여 해산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예학성 회장님과 박형규 총무님에게 감사드리며 많이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날 차남결혼식을 하고 참석하신 곽각순 선배님이 금일봉을 희사하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참고로 대구컨트리클럽 사장님의 외삼촌이 예학성 회장님입니다. 덕분에 편히 운동하고 왔습니다.



참석하신 회원 (존칭 생략)

예학성, 조장제, 이상원, 박형규, 김재수, 하근수, 박병덕, 석광호, 정용국, 곽동수, 김정희, 이채현, 변재욱, 정원근, 이재양, 이영주, 최형근, 전열경, 배병원, 서성용, 곽각순, 구중수, 권용주, 지성우

부산동창회 임원 명단

- 회장 - 박형규(36회)
- 부회장 - 김태곤(38회), 박진현(39회), 박병렬(40회)
- 총무이사 - 석광호(45회)
- 재무이사 - 이영주(45회)
- 공보이사 - 정기목(45회)
- 감사 - 박재우(43회), 강신수(44회)
- 부총무 - 고병구(46회), 채광수(46회)
- 경의금고기획이사 - 장한기(41회)
- 경의금고재무이사 - 장기형(45회)
- 카페운영위원장 - 남상승(49회)

부산지부 소식(2011년 1월~6월)

- 2010년 12월, 오지섭(32회) 동문 일신기독병원 병원장 취임
- 이영택(48회) 동문, 부산외과학회장 취임
- 2011년 2월, 함소희(52회) 동문 부산광역시 서구 의사회장 취임

부산동창회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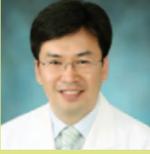
- 2011년 1월 11일 확대이사회 개최
- 2011년 2월 10일 1차 상임이사회 개최
- 2011년 2월 18일 부산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 2011년 3월 18일 2차 상임이사회 개최
- 2011년 5월 8일 부산동창회 봄 등반대회(백양산)
- 2011년 5월 25일 부산동창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개최

경조사

- 2011년 4월 5일 고경환(34회) 동문 부친상
- 2011년 4월 28일 유현열(46회) 동문 모친상
- 2011년 5월 4일 하정환(56회) 동문 부친상
- 2011년 5월 7일 최한용(41회) 동문 차녀 결혼식
- 2011년 5월 14일 곽각순(26회) 동문 차남 결혼식
- 2011년 6월 5일 박병열(40회) 동문 장녀 결혼식

울산지부

제공 | 윤상홍(58회) 동문



모임 및 행사

1분기 정기이사회(2월 2일, 정일품 한정식)
 이사 열아홉 분이 참석하여 2011년 정기총회 개최권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차기회장단에 대한 인선이 있었고 내외적 사정을 감안하여 십오년여 만에 동문회비를 인상기로 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동문회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기감사(3월 7일, 예맥)
 정영환 감사를 모시고 2010년 회무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2011년 정기총회(3월 17일, MBC컨벤션센터)
 2011년 정기총회가 3월 17일 7시, 울산 MBC컨벤션센터에서 변영우 총동창회장님, 백봉수 재울 경북대학교 총동창회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정호 명예회장님을 위시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뷔페 식사를 겸한 제1부에서는 백봉수(31회) 동문이 '행복한 삶을 갖는 건강노화의 7가지 요소'라는 주제의 강좌를 하였고 뒤이어 류상건(58회) 동문의 색소폰 연주가 흥을 돋우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감사보고, 결산보고 및 회무보고가 있었고 2년 임기의 신임회장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박근목(41회) 회장의 뒤를 이어 이기호(45회) 동문께서 신임회장으로 취임하였고 부회장에 박재후(46

회) 동문, 감사에 이동진(48회) 동문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홍영애(51회), 김창희(56회), 하영애(61회) 등 3명의 여성이사가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이어 안전토의와 신입회원 소개를 끝으로 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분기 정기이사회(5월 3일, 정일품 한정식)



이사 스물여섯 분이 참석하여 춘계등반대회, 동문친선골프대회 등 2분기 예정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남구분회모임(5월 12일, 은솔숯불가든)
 구군별 분회 중 남구분회(분회장 : 이명우, 51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려 동문 열세 분이 참석하여 지역별 동문유대 강화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타 구군별 모임은 하반기에 계속될 예정입니다.

춘계등반대회 및 आय회(5월 22일, 거제도 대금산)



거가대교 개통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워진 거제도

대금산을 산행코스로 정하여 동문 및 가족 등 약 삼십여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산행 후 신선대와 바람의 언덕 관광을 하였고 구조라 해변에서 자연산 회로 회식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재울 경북대 총동창회와 함께하는 행사로 본회 백봉수 회장님과 김성중 사무처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동문 근황

- 김성중(57회)
2월 24일, 전임총무로 총동창회 공로패 수상.
- 백승찬(52회)
3월 1일, 경산 삼성병원 개원.
- 이기호(45회)
3월 17일, 재울 동문회장에 취임.
- 이진관(29회)
6월 30일, 동강병원 퇴직. 병원장, 의료원장을 역임하시며 30년 동안 근무하시던 병원을 퇴직하시고 의업에서 은퇴하시어 서울에서 생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 김근홍(41회)
6월 30일, 동강병원 퇴직. 병원장을 역임하신 동강병원 근무를 마치고 21세기 좋은병원에서 새로운 진료를 시작하십니다.

신입회원

- 송은주(73회, 중앙병원 내과)
- 이민혁(74회, 중앙병원 신경외과)
- 김세진(74회, 중앙병원 내과)

경조사

- 이동훈(33회, 건강증진의원)
장남 결혼식, 4월 22일
- 이민혁(74회, 중앙병원 신경외과)
본인 결혼식, 5월 21일

- 박우현(56회, 현대가정의원)
장인상, 1월 8일
- 김병윤(65회, 세나병원 산부인과)
장인상, 2월 4일
- 정영환(47회, 21세기좋은병원)
장모상, 5월 7일
- 송원영(49회, 동강병원 응급의학과)
장인상 5월 9일
- 이동진(48회, 동강병원 소아청소년과)
부친상 5월 24일
- 이명우(51회, 중앙학문병원)
모친상 5월 28일
- 동가진(57회, 다나산부인과)
부친상 6월 27일

• 동기회 소식



제공 | 김경수 총무

27회

사랑보다 더한 것은 우정



2011년 5월 22일 미국 루이지애나 New Orleans에서 'Service Above Self' 초아의 봉사. 'Building Communities Bridging Continents', '내 고장을 튼튼히 세계를 하나로'의 표어 아래서 18,500명의 로타리안들이 참가한 제102차 국제로타리 대회를 마치고 오후 5시경 Crowne Plaza Astor Hotel에 돌아오니 27회 동기 강주안(St. Louis 의과대학 병리학 외래교수), 이영기(일반외과 미국 전문의) 친구와 이영기 친구의 부인, 아들 둘(아들 하나는 X-ray 미국 전문의)이 같이 와서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반가운지 가벼운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고 곧 우리들은 미시시피 강변, 루이 암스트롱 공원을 거닐면서 온갖 정담,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강주안 친구는 St. Louis에서 비행기타고 4시

간, 이영기 친구는 Texas Winter시에서 몸이 불편한데 효자 자식들이 모시고 Dallas에 사는 아들집으로 해서 차로 11시간 만에 왔었다. 그렇게나 멀리서 와서 불과 7시간만 만나고 우리들은 헤어졌다.(친구들은 밤 12시경 50m 떨어져 있는 Hotel로) 재미 27동기가 18명 중 금년 1월에李玉 동문이 他界(타계)하고 남은 17명은 또 만날 수 있을까.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



5월 23일 New Orleans에서 Los Angeles로 왔다. Wilshire Plaza Hotel에 밤 9시경 도착하니 전성일 친구와 부인이 같이 1시간 기다렸다가 갔다고 한다.(지금은 Hotel에서 약 1시간 거리. 산위에 V.I.P.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한다.) 밤 10시경 혼자서는 무서워 로타리 친구 3명과 같이 택시 대절, 왕복과 2시간 대기에 110\$로 예약하여 길도 잘 모르는 산길로 꾸불꾸불 전화로 대화하면서 네비게이션으로 조절하면서 갔다. 캄캄한 산 위, 그 집만 불이 켜져 있었다. 백발 노부부 얼마나 반가운가. 그의 서재, 벽에는 자기 아들 노벨 평화 단체상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 나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렇게나 친구가 그리운가. 몸은 비록 미국 땅에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그리운 대구 하늘 밑에 있구나. 자기 집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그 옛날 경북중학의 교가, 경북여고의 교가를 같이 합창하였다. 이어서 의예과 때 배운 스와니 강, 켄터키 옛집과 Auld Lang Syne도 부르고 즐거움도 잠시 우리들은 자기부인과 셋이서 미국식으로 껴안고 1시간 만에 헤어져야 했

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언덕 위 목장 같은 문에서 배웅하면서 “천천히 잘 내려가라고” 말하는 친구 목소리의 그림자만이 자꾸 따라오는 듯 눈시울이 또 뜨거워지면서 77세 우리들의 사랑보다 더 우정이 더 좋은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반가워 웃으면서도 눈물만 자꾸 나더라. 또 만날 수 있을까... 걱정만 되고...

전성일 친구는 옛날 대구법원 앞 광제이비인후과의원의 차남이고, 경북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며 의예과 2년까지 다니다 도미. 의학공부는 그만두고 경제학 교수로서 전공 후 클라크 대학 경제학 교수, 1980년대 포항공대에서 약 10년간 교수생활, 그 후 도미하여 재미 중, 그의 형은 경북의대 25회 전성균 선배님이다.



제공 | 김재식 전 공보이사

28회

이상국 동기는 계속 ‘영문 생활지혜’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어 미국소식을 대신하고 있다. 강반(31회) 켄터키의대교수의 안행대상 수상 때 부군인 여용연 동기를 동창회 총회에서 극적인 상면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하였고 다음 날에는 대구부인동기회에서 베푼 기념회식이 있었다. 김재환 동기는 리타이어를 하고 특히 골프로 척추건강유지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매우 만족한 여생의 미국생활을 하고 있고 장남 김기덕은 예일대, 존스홉킨스의대 졸업 후 UC Davis에서 신경외과교수로 활약을 하고 있으며, 차남 김기성은 미국 육사 졸업 후 미국 육군대위 복무를 마치고 Hostra법대를 졸업 후 뉴욕 사고상해 변호사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녀 김수정은 로체스터의대 졸업 후 뉴욕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활약하고 있고, 차녀 김현정은 콜롬비아대 교육학과 졸업 후, 교사지도자역할을 하고 있어서 성공적인 자녀 도미성과를 얻었다. 임병우 동기의 3자녀 중

임영준은 코넬의대를 졸업했고 장녀 임지희는 존스홉킨스대병원을 거쳐 예일의대호흡기내과교수로 있고 차녀 임제희는 콜롬비아의대를 졸업한 뒤 홀러싱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고 있어서 동기로서 감명을 많이 주고 있다. 그 외 다른 미국동기들의 자녀소식을 전하고자 하니 소식 주기를 바란다. 나머지 동기들의 자녀들도 모두 다 성공하여 대를 잘 잇고 있어서 성공표본으로 물어 물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싶은 소감을 밝히는 바이다. 특급소식으로 윤영길 동기가 미국에 왔다는 소문으로 이상국 동기가 미국전국에 지명수배를 하였으나 행방이 묘연하여 걱정을 하던 중 결국 소재가 발각되어 미국동기회 회식에서 상면을 한 결과 내외가 동반하였던 것이 증명되어 회식하는 자리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사진도 찍는 등 희소식을 전하였다.



대구소식

이재창와 이상계 동기 : 고교동기모임에서 5월 19일(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답사를 마치고 돌아와 모처럼 기분전환. 동일 김재식 동기는 초대된 살구나무 과수원(杏林)에서 손주들과 즐거운 행림의 고사를 되새겼다.

김재식의 특기사항은 특히 봄학기에 본과 1학년 의사학강의 강의록을 개정하고 강의를 하였고 5월 20일(금) 서울 고려의대 대한의사학회에 연재(동산의서양의학) 발표를 하였으며 경북대 개교 기념행사로 5월 25일(화)부터 28일(금)까지 연례 행사인 제9차 동창저서 전시회와 제4차 지역의

역사연구자료 등을 발표를 하였고, 가을 경북대 동서의학연구회집담회와 제13집 회지를 준비하고 있다. 윤영길은 자유분방한 유유자적의 생활을 즐기는 가운데 그동안 대전으로 故 서재관 동기의 묘소를 유광수 동기와 같이 방문하고 모교 교지 「행운」에 회고하였다. 지금은 이 편집부(지도교수 전보연 교수/안과)를 계속 김재식 동기가 고문을 맡아 편집부학생들과 다음호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동기회는 작년으로 졸업 50주년을 맞았으나 여러 가지 피치못할 사정 등으로 무언가 기념사업을 못하여 마음 한구석 서운한 감이 없지 않으나 아마 60주년 기념은 기대를 가져본다. 동기 여러분 강영과 행운을 빕니다.

*모교 교지 '행운(杏雲)'의 이전 모체 삼영(杉影)원본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제공 | 박영준 차기 회장

29회

졸업 5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동기회 모임을 가졌다. 모두 禧壽 전후의 고령인지라 건강과 기타 사정으로 모두 22명의 부부가 참석하였다. (참석 회원 : 강진성, 강태생, 김두희, 김병권, 김진대, 박무근, 박병덕, 박상곤, 박영춘, 박자근, 송문원, 송화복, 안원호, 이강목, 이근후, 이만희, 이상석, 이진관, 장원익, 장태수, 정준모, 한용섭) 금년 총회에서 회장에 정준모, 차기회장에 박영춘을 선임하고, 송문원의 회고 영상쇼, 강태생과 김진대의 축하, 박무근과 송화복의 작시 낭송, 김진대와 박영춘의 건강 특강, 이만희의 폭소 만담, 김병권, 박병덕, 박상곤, 안원호 부부의 가요 무대 등 다채롭고 흥미진진하고 화기에애한 가운데 모두들 마음은 옛 학창시절로 되돌아가 있었다. 제주도 관광과 올레길 산책 등 꿈같은 아

쉬운 3박4일이었다. 자랑스러운 동기로서는 재미 심재훈은 은퇴 후 미국에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녀와 같이 한의원을 개원하여 침술치료를 하는 한편 매년 서울 요셉병원(노숙자 무료진료소)에서 약 2개월간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재경 경북의대 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한 재미 김진길은 은퇴 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의료가 취약한 남미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 김두희는 한국불교문화회 회장을 10년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의학한림원 원로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강진성은 매년 의료 취약한 국가(금년 6월에는 라오스)에 가서 무료 언청이 수술 등 의료선교활동을 하고있다. 또한 이근후는 은퇴 후 사단법인 가족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보육원 운영과 네팔과의 문화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슬픈 소식은 윤성직 선생께서 지난 5월 9일 작고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회원님들 건강을 지켜서 보람 있는 일 많이 하시고 9988 합시다.



제공 | 김도상 회장

30회

1월에서 6월말까지의 우리 30회 동기들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 특별한 경사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좋지 않은 일도 없었으니 모두가 대체로 건강하고 잘 지내온 것으로 자위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장 특기해야할 일을 여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작년의 총무 시절부터 졸업 50주년 모교방문(homecoming)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매월 얼마씩 모금을 하고 있는데 회장 단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졸업 50주년 모교방문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준비위원장에는 소원영 동기가 선출되고

준비위원회에는 권득기, 김의원, 신은식, 오장석, 이상원, 이용길, 윤석화, 조세환 동기들이 맡게 되고 회장 김도상과 총무 김병화 동기가 적극 돕기로 했다. 아래 사진들은 준비위원회의 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졸업 50주년 homecoming은 틀림없이 하게 된다. 타 의과대학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후배들에게도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자체



만의 축제로 끝내지 말고 다소라도 모교에 성금도 내고 우리들이 공부했던 모교를 찾는 졸업 50주년 모교방문의 전통이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나와 더불어 30회 동기들 모두의 소원이기도 하다. 30회 동기들의 졸업 50주년 homecoming의 성공을 위해 아직도 기동할 수 있는 동기들이라면 어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축제에 많이 참석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부산 지역과 미국 기타지역에 계시는 동기들의 아낌없는 좋은 고견과 채찍 그리고 성원을 부탁한다. 시기는 2012년 5월 둘째 토요일(12일)로 잡고 있으나 미국이나 타지역 동기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여유를 남기고 있다. 모교 방문을 마치고 우리들의 기념여행은 우리가 고향이고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기에 1박2일 정도의 국내여행으로 하기로 잠정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멋진 이벤트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사모님들의 대우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약속한다.

사랑하는 30회 동기 여러분!!!

내년 homecoming에 우리 모두 모여 아름답고 의미있고 보람된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영원한 동기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만날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제공 | 김상도 총무

35회

경북의대 35회 졸업한 우리들은 명칭을 삼오(3.5) 동기회라 정하고 총동기회(정기총회)는 매년 마지막달 첫째 토요일, 정기 월례회는(주로 대구동기) 매달 셋째 금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장, 총무는 순번에 의해 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번 정기 총회 때 순번에 의해 회장에 장병희, 총무에 김상도 회원이 일 년간 수고하기로 하였다. 우리 삼오동기회는 25주년 홈커밍 때는 본교에서 행사를 마치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으며 30주년 행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박4일간의 정식 행사를 마치고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으며, 그 후 2007년에는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한국 17명, 미국 32명, 총 49명)을 하였으며 2009년 행사는 일본에서 하기로 하였으나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하고 2010년에는 동구라파(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러시아/한국 12명, 미국 17명, 총 29명) 여행을 다녀왔으며 2012년 10월경에는 타국이 아닌 한국에서 재미동기들과 명승지 관광과 추억에 남는 이벤트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을 3.5동기 회원들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상의 아이디어를 갖고 동기들의 모국 방문이 유익하고 즐겁고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되도록 알찬 준비를 하도록 하자!

월례회 모임은 부부동반으로 한다.

1월 21일 영남별장식당 15명

2월 18일	보리수식당	16명
3월 18일	동원암소가든	20명
4월 15일	영남별장식당	16명
5월 20일	예전식당	20명
6월 17일	동원암소가든	18명

경조사

- 故 서수지 동기 : 모친상(1월 20일)
- 변승열 동기 : 차남 혼사
(3월 5일, 포항목화예식장)
- 故 정기용 동기 : 아들 혼사
(4월 1일, 서울소재예식장)



제공 | 권국현 회장

36회

대구시 북구에서 소아과 의원을 개원 중이던 손영우가 개원을 접고 문경제일병원의 소아과 과장으로 취임하였다. 송풍호는 근무 중인 화원의 현대병원을 인수하여 본인이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19일 조석제는 모친상을 당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동기들도 장세찬을 필두로 현업에서 은퇴하기 시작했다. 윤갑용도 은퇴를 했단다. 우리 동기들 모두 무거운 짐일랑 이제 서서히 내려놓고 생의 후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1월 20일에는 미국의 이춘길이 귀국하여 대구 대봉동 만리장성에서 동�회 주최 환영연을 가졌고, 3월 22일에는 홍대순, 3월 25일에는 박찬훈이 고국을 방문하여 동기들과 반가운 해후를 했다. 대전이 고향인 박찬훈은 근친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므로 고국을 방문해도 대구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동부인하여 동기들의 환영 만찬회에 참석하여 나이는 들었으나 젊고 활력에 찬 모습으로 동기

들과 대면하였다. 6월 17일에는 윤갑용이가 모친상을 당하여 미국으로부터 고국을 내방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기들의 확인된 휴대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혹시 변동이나 착오가 있으면 심청택 총무에게 연락바랍니다. 미등록자 필히 등록요망.

강병조 : 010-2509-5752

견일수 : 010-3827-8001

김무룡 : 010-9383-3922

노관식 : 010-9284-9330

박도수 : 016-327-4082

박형규 : 010-3835-9515

백용현 : 010-3819-2641

손건부 : 011-9500-6242 / 010-8500-6242

손영우 : 010-6799-7011

송풍호 : 010-3506-3283

심청택 : 010-5660-3550

염덕준 : 010-9370-3709

이동행 : 011-9714-4776

이영하 : 010-3009-9361

이우영 : 010-9093-6507

이정범 : 010-3060-9239

장기용 : 011-577-6360

장신형 : 010-7298-8334

정수광 : 010-3526-7529

정영기 : 010-8956-6452

조석제 : 011-9578-9578

최영인 : 010-4522-7350

허진철 : 011-550-8381

백철홍 : 019-501-4139

권국현 : 017-808-7847



제공 | 조성룡 총무

40회

40회 동기는 내년(2012년)이 졸업 40주년이 되는 해다. 따라서 벌써 금년 2월에 한영한마음아동병원 김종환 원장이 정년퇴임하고 지금 명예 원장으로 재취업했으며 진주경상대학에서 학장, 병원장을 역임한 송준경 교수가 정년퇴임하고 아들, 딸과 함께 개원하였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중희 동기가 주축이 되어 정영섭, 김준기, 이종술 동기와 국내의 한승세 교수와 박병호 원장이 참석하여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을 경유하는 남미 여행을 같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4월 17일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이종술 동기를 비롯 모두 39명이 참석한 봄 야유회를 부산 이기대, 기장어촌, 용궁사에서 하루를 바쁘게 즐겁게 보냈다. 내년 졸업 40주년 기념 해외여행 행사를 위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2012년 11월경 하와이에서 5박7일 계획으로 국내 및 국외의 동기들이 모두 만나 회포를 풀고 짧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로 잠정 결정되었으며 내년 집행부로 내정된 도영구 회장과 서정규 총무의 노고를 미리 치하드리고 열심히 성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공 | 송재권 총무

42회

2011년 동기기 총회 개최

3월 27일, 남도 여행을 겸한 동기기 총회를 가졌다. 동기와 가족 포함하여 29명이 참석하였고 전세버스를 타고 담양의 죽녹원, 소쇄원, 식영정을 관광하고 오후에는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금성산성 산행 후 거창의 대전식당에서 식사와 회의

를 하였다. 임원개선에서는 정무달 동기가 회장에 이규인 동기는 차기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동안 수고한 김종식 회장과 송재권 총무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고 이날 찍은 사진을 빔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김종식 회장, 유동명 동기, 김철수 감사의 행사 찬조가 푸짐하였고 여러 동기와 가족들의 절대적인 호응으로 다음해에도 여행을 겸한 총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

• 차기임원 명단 : 회장 정무달 동기, 감사 김종식 동기, 총무 송재권 동기

5월 동기기 모임이 5월 27일(금) 수성동 '이땅에 한우'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신임 정무달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 덕분에 자주 볼 수 없었던 뉴페이스 동기들이 대거 참석하여 반가운 모임이 되었다. 맛있는 한우를 포식하였고 식후에는 3월 여행 사진을 함께 보는 이벤트도 가졌다.

동기기 여행사진을 동창회 홈페이지(kpmedal.co.kr) 자유게시판에 올려 두었으니 찾아보시기를...



제공 | 이광윤 회장

43회

'43동기의 날' 제정

43회 동기기회는 타지방에 거주하는 회원들과의 만남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례행사를 제정하였다. 올해부터 매년 4월 제3주말에 전국의 동기기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모임을 갖기로 하여 4월 16일(토)부터 4월 17일(일)까지 '43동기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올해의 행사에는 서울, 부산 및 경남 지역의 동기들을 포함한 24명이 참석하였는데, 4월 16일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서 열광적 축제를 벌인 다음 숙소에서

늦은 밤까지 애기꽃을 피웠다. 4월 17일에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골프를 치거나 산행을 하였는데, 오랫동안 격조하였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공 | 배형일 총무

44회

44회 동기기회는 올해로 졸업 35주년을 맞게 됩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동기들이 올해에 환갑이 되지요. 물론 진갑이 되는 동기도 있고, 예순이 되는 동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1년 전반기 동기기회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보면, 1월 14일 신년교례회, 3월 25일 동기기회, 5월 19일 정기총회 등 세번의 모임을 들안길 만반 음식점에서 가졌습니다. 좋은 소식은 1월 15일 김지홍, 박완석, 조영채 동기 자제들의 혼사, 2월 19일 여형태 동기 자제, 3월 6일 박광우 동기 자제의 혼사가 있었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2박4일간 졸업 35주년 기념여행을 마카오 베네시안호텔에서 동기 13명과 부인 11명, 총 24명이 참석하여 즐겁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3월 10일 이재민 동기(전 상주적십자병원장)가 대구서구보건소장으로 취임하였고, 4월 20일 백운이 동기가 35대 조영래 병원장에 이어 경북대학교병원 제36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슬픈 소식은 포항지역의 정동필 동기가 애석하게도 지병으로 1월 10일 소천하여 많은 동기들이 슬퍼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인은 의

료계 바둑의 대가였습니다. 또한 4월 12일 광구식 동기가 모친상을 당하여 많은 동기들이 위로하였습니다. 5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여형태 동기(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신경외과 교수), 총무에 배형일 동기가 선출되어 1년간 동기기회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로 하였고, 차기회장은 김인호 동기(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외과 교수)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전임 박광우 회장과 권종국 총무의 노고, 특히 졸업 35주년 기념여행을 준비하고 시행하느라 무던히 고생한 것에 대해 동기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공 | 장기호 총무

51회

지난 6월 19일, 인터볼고 경산C.C에서 동기기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상쾌한 이른 새벽, 멀리 부산에서 강성희, 백승남, 상주에서 이승구 동기가 한걸음에 달려와 주었다. 모두 19명의 동기가 반가움과 정이 넘치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조별로 라운딩을 시작하였다. 뽑기 게임에 한타 한타에 일희일비하며 동기의 정을 쌓고 확인하는 하루가 되었다.

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다.

우승 : 장내원

준우승 : 방종경

롱기스트 : 강재원

니어리스트 : 김동석

1언더파 72타를 친 박성민 동기가 메달리스트에 등극하여 부러움과 찬사를 받았다. 우리 51회는 지난해 동창회 기별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금년에도 우승 기수로서 최강의 선수단을 구성하기로 약속하며 대회를 마쳤다.



제공 | 이태규 총무

53회

동기회 신년회

2011년 1월 22일, 제이스호텔 자미정 별채에서 우리 동기회 신년회가 있었다. 작년의 성공적인 홈커밍 행사와 가을의 멋진 부산모임의 기억 때문인지 많은 동기들이 모였다. 경향각지에서 참석한 동기들은 남녀도합 48명이었다. 부산, 서울, 춘천 등지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왔으며 대학에 봉직하는 동기들도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즐거운 식사와 대화를 한 뒤 약 40명의 동기들이 수성구의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 모임을 가졌다. 다 같이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으로 한잔하며 우정을 나누었다. 타 지역에서 온 동기들은 인터불고호텔에서 1박 하였으며 다음날 회장단이 호텔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아쉬운 이별을 하였다.



동기회 총회 및 골프대회

4월 16일 수성구 소재 금강횃집에서 동기회 총회가 있었다. 여자 동기생 8명을 비롯 40여 명의 동기들이 모여 반가운 해후를 하였다. 지난해 회무보고, 재무보고를 하고 늦었지만 홈커밍때 큰 수고를 한 김명성, 이구희, 손윤호, 이철 동기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고, 손진호가 홈커밍 기념 CD를 정성껏 만들어 주었다. 재무를 맡아 수

고한 후임 회장단 인선이 있었는데 회장 이철, 부회장 이경옥, 박창순, 총무 이태규, 재무 이민석이 뽑혔다. 회장 부회장을 역임한 범털들이지만 동기회를 위하여 백의종군하기로 한 것이다. 신임 회장단과 동기들은 1년 동안 동기회를 맡아 수고해준 이성구, 현향숙, 이철, 박세영, 강헌구를 불러내어 박수로 위로해 주었다. 1차를 마치고 대부분의 동기들이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또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8명의 여자동기들도 끝까지 남아서 같이 놀았다. 타지에서 온 친구들과 아쉬운 친구들, 8명의 여자동기들은 모두 두산위브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여 1시가 넘도록 맥주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기회 골프대회



아침 일찍, 청도 그레이스 골프장에 24명의 동기들이 모였다. 클럽하우스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도 함께하였다. 날씨는 청명하고 전형적인 봄 날씨였다. 기념촬영을 하고 라운딩에 들어갔다. 신록이 아름다운 그린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우리들의 웃음소리도 맑은 하늘로 퍼져 나갔다. 라운딩 후 회장단에서 식사를 사고 시상식도 있었다. 성적인 '신페리오' 방식이 돈이 든다 하여 경기위원장 손윤호 마음대로 하는 '손페리오'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수상자 중엔 실제 잘 친 사람도 한둘 있었으나 주로 부킹하는데 수고한 사람(서중환), 서울서 온 사람(강희천, 김규희), 자기에게 평소 술 한 잔 사준 사

람(김경울), 예쁜 여자(김숙영) 등이 상을 받았다. 대신 이성구, 이태규 등 골프는 잘 쳤으나 선량하고 백 없는 동기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동기들 모두 즐거워하며 내년에도 꼭 다시 보자고 굳게 약속하였다.



제공 | 황보근 총무

54회

3월 19일 토요일, 예년보다 한 달 늦게 총회가 열렸고 또 홈커밍 준비위원회가 주관해서 행사를 치러 총무는 아주 편하게 행사 진행을 구경만 하였습니다. 최동호 홈커밍 준비위원장의 제의로 동기 총회 사상 처음으로 부부동반 모임을 그랜드호텔에서 가졌고,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부부가 참석하였으며 최동호 동기의 사회로 시끌벅적하고 재미있는 총회를 치렀습니다. 두 달 후 있을 홈커밍 행사의 적극적인 동기 참여가 예상될 만큼 많이 참석하였습니다.(부부+솔로=56명) 6월 19일, 이동현 동기의 초청으로 창녕 힐마루 골프장에서 춘계골프대회를 가졌습니다. 모두 14명의 동기가 참여하여 홍성범 동기가 77타로 메달리스트, 신페리오 방식으로 성적 집계하여 김준욱 동기가 86타로 챔피언, 성열오 동기가 237m로 롱기스트, 최진교 동기가 1.5m로 니어리스트 수상하였습니다. 8월 2일에는 동기 이사회가 들안길 대륙초밥에서 황정환 회장, 이상민 부회장, 김인겸, 김시열, 정상득 이사, 황보근 총무가 참여하여 올해 남은 행사일정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8월 28일 거행될 경북의대 동창 골프대회의 참가 대표선수 지원방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참가비 절반인 50만 원 부조) 8월 28일, 청도 그레이스골프장에서 실시된 동창회 골프대회에 정두선, 홍성범, 안중걸, 백효

중 동기가 참가하였습니다. 회장·총무가 직접 응원함

경조사

3월 13일 최진교 동기 모친상
3월 19일 서창식 동기 장모상
5월 5일 정일경 동기 부친상
6월 24일 천종욱 동기 모친상
7월 18일 주인수 동기 모친상
8월 17일 장태원 동기 장모상
9월 16일 박낭운 동기 시모상
10월 16일 도용희 동기 장녀 결혼 - 일등으로 장가 가더만 일등으로 해치우네!
축하합니다! 앞으로 총무가 더 바빠지겠습니다.



제공 | 권범찬 총무

59회

-1월 2일 : 이춘대 동기가 대구우리들병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축하합니다.
-1월 23일 : 동기회 신년회가 대구 수성구 조어람일식에서 약 2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열려,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성기수 동기가 참석하여 그 곳에 있는 동기들의 근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어, 더욱 뜻있는 자리가 되었다.
-5월 14일 : 백승기 동기가 확장이전 개원을 하여 많은 동기들이 축하해 주었다. 나날이 더 발전하시길.....
-6월 12일 : 제3회 동기회 골프대회가 화창한 날씨 속에 청도오션힐스 골프장에서 개최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우승에는 이상미, 메달리스트에는 정수진, 행운상에는 권옥희 동기가 수상하여, 여풍이 대단한 대회가 되었다.

제36대 경북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한 백운이(44회) 동문

2011년 4월 7일, 경북대병원 제36대 병원장으로 백운이 동문이 임명됐다. 백운이 동문은 지난 2월 선거를 거쳐 차기 병원장 후보에 오른 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4월 20일, 경북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총장,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대구시 중구청장을 비롯한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대학교병원 10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이 열렸다. 백운이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환자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진료교육연구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내부의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변화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운이 병원장은 대한마취학회 회장과 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소장 및 수술실장, 진료차장 등을 역임했다.



● 학력 및 주요 약력

1969~1976	경북대학교 의학사
1979~1981	경북대학교 의학석사
1986~1989	전북대학교 의학박사
1989~1990	일본경도대학 마취와 뇌파 교환교수
1984~현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1992~1993	경북대학교병원 설립추진위원
1995~1996	경북대학교병원 진료차장
2002~2003, 1998~2000	경북대학교병원 수술실장
2003~2004	대한마취과학회 교육수련이사
2003~2005	경북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소장
2005~2006	대한마취학회 회장
2005~200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건립추진단장
2006~현재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 수상 경력

1996, 1999, 2003, 2004 대한마취과학회 학술상



● 개인동정

인주철(33회) 동문, 세명병원 SM사랑봉사단 발대식 축하



인주철 동문(세명병원 명예회장)은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에서 3월 29일(화)에 개최된 SM사랑봉사단 발대식 및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인주철 동문은 축하를 통해 "지역사랑 나눔과 섬김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 다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제명(42회) 동문,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장 취임



정제명 동문은 지난 3월 11일, 응급의료개선을 위해 대구·경북권역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소장 과 경북대학병원 권역응급센터 과장으로 취임했다. 정제명 동문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병원장과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장 및 대구경북권역 1339 응급정보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조원현(43회) 동문, 제1회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상 수상



대구시의사회는 3월 24일 대구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회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상'을 조원현 동문(계명대학교

Personal News



동산의료원 외과)에게 시상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상'은 대구시의사회가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계의 위상을 높인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0년 3월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상 시상 규정'을 통해 제정됐으며,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인을 선정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을 준다.

이재민(44회) 동문, 서구보건소장 임명

이재민 동문이 3월 3일 서구보건소장에 신규 임용되었다. 이재민 동문은 성주 출신으로 경주기독병원 정형외과 과장, 대구적십자병원 정형외과 과장, 동아정형외과의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상주적십자병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기환(46회) 동문, 제28대 계명대 동산병원장 임명

한기환 동문은 지난 3월 1일 계명대 동산병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한기환 병원장은 미국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 소아병원 객원교수, 대만 장궁기념병원 소아병원 객원교수, 계명의대 성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동산병원 성형외과과장, 동산의료원 의화도서관장, 경주동산병원장,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성형외과학회 영호남지역학회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손은익(48회) 동문, 경주 동산병원장 임명



손은익 동문은 지난 3월 1일 경주 동산병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손은익 경주동산병원장은 미국 워싱턴대학병원 신경외과 및 간질센터 임상외과, 계명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동산병원 신경외과장,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장, 대한간질학회 부회장, 계명대 의학유전연구소장, 동산의료원 대외협력처장, 동산의료선교복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간질학회 대구·경북지회장, 새누리좋은사람들 대구시지부장, 대한간질학회 장미회 위탁진료소장을 맡고 있다.

민병우(52회) 동문, 동산의료원 대외협력처장 임명



민병우 동문은 지난 3월 1일, 동산의료원 대외협력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민병우 대외협력처장은 계명대 교수, 미국 의사면허증 취득, 미국 USC대학의 교환교수, 계명대 동산의료원 전산차장, 동산병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부터 계명대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동산병원 정형외과장을 맡고 있다.

박재용(52회) 동문, 보령암학술상 선정

박재용 동문은 지난 3월 15일 보령제약과 한국암연구재단이 공동 제정한 '제10회 보령암학술

상'에 선정되었다. 박재용 동문은 폐암세포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 바이오마커(생체표지물질)의 발굴, 폐암 진단용 분자영상 탐침자 및 표적형 약물전달 기술개발 등 폐암에 대한 다양한 기초 연구를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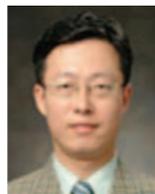
황진복(55회) 동문, 동산의료원 부원장 겸 비상계획실장 겸 국제의료센터장 임명

황진복 동문은 지난 3월 1일, 동산의료원 부원장 겸 비상계획실장 겸 국제의료센터장에 임명되었다. 황진복 부원장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소아과장, 계명대 교수, 계명대 동산의료원 홍보실장, 계명대 대외협력과장, 동산의료원 교육연구부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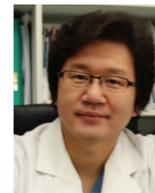


박경식(61회) 동문,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우수 구연상 수상

박경식 동문(계명대 동산병원 소화기내과)이 4월 10일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 운동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Alterations of Colonic Contractility in IL-10 Knockout Mouse Model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내용으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황성주(62회) 동문, 세계모발이식학회 상임이사, 아시안모발이식학회 회장 취임



황성주 동문(서울 털털한 피부과원장)이 2011년 6월 24일~2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안 모발이식 학술대회(Asian Association of Hair Restoration Surgeons : AAHRS)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12년 4월에 열릴 차기 학회 장소로 서울이 결정되었고, 황성주 동문이 대회장을 맡는다. 또한, 2011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제19차 세계모발이식학술대회(International Society of Hair Restoration Surgery : ISHRS)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세계모발이식학회는 1993년 창립되어 현재 63개국 798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재(65회) 동문, 제14회 동원연구비 수상, 연구비 1천만 원 동원약품 후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승재 동문이 제14회 동원연구비를 수상, 연구비 1,000만 원과 증서를 받았다. 이승재 동문의 논문은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코일링 시술 후 발생한 다발성 미세뇌 경색이 인지 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향적 연구'다. 본 연구비는 의학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1998년 제정, 제1회부터 동원약품이 후원하고 있다.

박동호(68회) 동문, 울산학술상 수상

박동호 동문이 최근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105회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2010년 한해 동안 제1저자로 SCI급 논문에 최다 등재된 임상교수에게 주는 학술상인 울산학술상을 수상했다. 울산학술상은 미국 'Kresge Eye Institute'에 근무하는 신동호 교수가 기증한 장학금으로 제정된 상으로, SCI급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AAO학회 및 ARVO(Th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로 발표한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3월 20일	장명익(41회)	장남	6월 18일	김영환(61회)	본인
3월 20일	배선익(45회)	장남	6월 19일	박재신(50회)	장남
4월 3일	박진규(75회)		7월 3일	박영호(40회)	차녀
	이유진(75회)	본인	7월 9일	서영호(39회)	딸
4월 16일	허성재(75회)	본인	7월 9일	이충렬(50회)	장남
4월 24일	류한준(76회)	본인	7월 16일	전상식(43회)	
5월 14일	한진아(77회)	본인		김행미(45회)	장남
5월 15일	조동현(76회)	본인	8월 6일	김상유(50회)	장녀
5월 21일	김현철(41회)	장녀	8월 15일	김기산(49회)	장녀
5월 21일	한바다(73회)	본인	8월 21일	박영모(46회)	장남
5월 22일	권건영(46회)	장남	9월 18일	채영석(39회)	장남
5월 22일	유완식(45회)	아들	9월 24일	석준호(77회)	본인
5월 22일	권진영(76회)	본인	10월 1일	최병희(46회)	딸
5월 29일	박창묵(73회)	본인	10월 1일	최연경(74회)	
6월 4일	김영근(47회)	장녀		김지훈(75회)	본인

졸업 40주년 여행 '코타키나발루의 낙조'



글 _ 조남근(39회) 동문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선다. 저마다 여행의 목적은 다르겠지만 39회 동기부부 16명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고 새로운 충전을 위하여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코타키나발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자유로움에 모두들 떴있는 마음이 역력하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3월 26일	배동직(17회)	본인상	5월 19일	이동수(41회)	모친상
4월 3일	정경재(60회)	모친상	5월 27일	장석탁(47회)	부친상
4월 7일	백재민(55회)	본인상	6월 2일	박상균(47회)	부친상
4월 10일	김재진(61회)	부친상	7월 24일	손희철(51회)	부친상
4월 11일	허상명(53회)	부친상	7월 29일	윤봉호(58회)	모친상
4월 11일	이종인(56회)	부친상	8월 5일	천임순(57회)	부친상
4월 12일	곽규식(44회)	모친상	8월 9일	서경란(53회)	부친상
4월 13일	송창화(21회)	본인상	8월 10일	여형태(44회)	모친상
4월 13일	이경호(52회)	장인상	8월 20일	정선권(46회)	부친상
4월 16일	김기주(43회)	부친상	8월 22일	백일홍(39회)	부친상
5월 5일	정일경(54회)	부친상	8월 27일	이해영(25회)	본인상
5월 9일	윤성직(29회)	본인상	8월 31일	박성득(29회)	본인상
5월 9일	이찬우(51회)	부친상	9월 10일	김건엽(63회)	부친상
5월 14일	이광열(42회)	모친상	9월 16일	박남운(54회)	시모상
5월 18일	유용운(43회)	부인상			



다음날 일정에 따라 아침 일찍 사피 섬으로 향하는 보트에 몸을 실었다. 잔잔한 호수같은 바다에 흰 물살을 가르며 주변 경치를 감상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도착했다. 세계적인 휴양지답게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에 긴 시간의 비행과 충분치 못한 잠이지만 피곤한줄 모르는 모습들이다. 물으로 이어지는 다리 아래에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빠져 일렁이고 그사이로 학꽂지 몇 마리가 쌍을 이루어 한가로이 노닐고 있다. 이름 모를 조그만 고기들은 군락을 이루어 일사불란하게 이리저리 헤엄을 치는 모습이 평화롭다. 물고기들은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 살자며 꼬리치며 유혹하는 듯, 맑디맑은 에메랄드 빛 바다로 풍덩 뛰어 들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모두가 파라세일링을 즐기기로 하고 여덟 명씩 배를 타고 바다 깊숙이 들어갔다. 나머지는 순서를 기다리며 스노쿨링도 하며 일부는 해변의 그늘에 앉아 파도소리를 들으며 여행의 여운을 즐기고 있다. 모터보트가 속력을 내고 줄임에 따라 낙하산에 매달린 부부는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바다에 빠지기를 반복한다. 이 순간만큼은 아이가 된다. 하늘을 가르는 부부의 표정과 몸짓에서 더없는 즐거움과 행복한 모습이 전해진다. 어느 여행이든 선택 관광이 있지만 이



곳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음날은 취향에 따라 골프도 하고 키나발루산 산책도 하며 미국의 풍경을 즐겼다. 우리들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선셋 크루저가 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 조그만 이층 배 한 척을 전세내어 모두들 이층 테이블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세계 삼대 낙조 경관이라는 가이드 말에 기대들이 큰 모습들이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서편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점점 두꺼워지더니 이내 소나기가 쏟아진다. 속담에 “여름 소나기는 황소등어리도 다툰다”는 말도 있지만 이곳 바다에서는 배 한편으로는 비가 쏟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짙은 안개만이 있는, 한곳에서 전혀 다른 자연현상을 보게 되었다. 다행히 남지나해의 스콜은 스콜다웠다. 곧 비가 멈추고 엷어진 구름 사이로 구멍을 뚫어놓은 듯 붉은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환상적이다. 장렬하게 산화하는 불덩이는 볼 수 없었지만 바다위로 휘황한 금빛 띠를 사방에 길게 늘어뜨리며 떨어지는 태양이 아쉬워 사진들을 찍느라 바쁜 모습이다. 그 순간 반대편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고 환호성이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지만 색깔들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다. 그 무지개를 배경으로 2층 난간에 부인 한 명이 영화 타이타닉 주인공처럼 팔을



펼치고 바다를 향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동시에 누군가의 스마트폰에서 셀린디온의 인기곡 타이타닉의 주제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말 환상적인 밤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잊을 수 없는 밤이다. 다시 비가 내려서 이층으로 올라갔다. 멀리 시내 불빛만 반짝 거릴 뿐 가까이는 짙은 운무가 둘러 싸여있고 주변은 칠흑 같은 밤이다. 테이블을 중심으로 모두 둘러서고 명가수 부인 두 명이 나서 먼저 노래를 불렀다. 후두둑 후두둑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반주삼아 모두들 박수도 치고 흥겹게 따라 부른다. 지난밤에는 가요방에서 남자동기가 사회를 보았지만 오늘은 여성회원이 자청하여 사회를 보며 지명을 하니 모두들 신명이나서 잘들 부른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의예과 응원가가 시작되었다. “역전서 산격까지 젊은 청춘이 오늘도 모여드는 우리경대 의예과...” 만나면 기억상실증을 호소하던 친구들이 40여년 전 부르던 노래 가사를 잊지도 않고 정확히 잘도

부른다. 옆에선 부인네들까지도, “날씬 날씬 그대 허리 그대 허리... 나를 녹인다.” 춤을 추며 부른다. 순간 그 옛날 향촌동 고구마식당에서 찌그러진 막걸리 잔을 앞에 두고 청춘을 노래하고 이상과 희망을 쫓던 열정이 넘쳐나던 시절이 떠오른다. 20대의 하늘을 찌르던 그 기백이 이곳 남지나해 해상에서 다시금 충만하다. 하선할 때가 다가오자 모두들 손을 잡고 ‘만남’을 노래하며 원을 그리며 돈다.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세월이 한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오늘 남지나해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다. 정말 우리들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큰 인연이 아닐까. 줄기차게 내리던 비도 배에서 내리니 그쳤다. 삼박오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모두가 나이를 잊고 이십대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날들이었다. 그렇다. 오늘 받처럼 무지개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열정이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다면 나이는 진정 숫자에 불과할 것이다.



44회 동기회 졸업 35주년 기념 마카오·홍콩 여행기

글 _ 이경화(44회) 동문

44회 졸업 35주년 기념여행 준비위원회는 동기들의 설문조사를 취합하여 여행지를 마카오-홍콩 2박4일 일정을 확정하였다. 이번 졸업여행은 완전 자유 휴식을 위한 여행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하며, 그래서 장소는 베네치안 리조트 2박4일로 정했고 날씨는 30주년 여행 때처럼 졸업식 날로부터 정확히 35년이 지난 2월 26일 출발하였다.

참석인원은 24명(부부동반 : 권종국, 김광훈, 박광우, 오신열, 이석균, 이운상, 이웅렬, 이원화, 이정권, 조병채, 최도영 / 이경화, 이상숙)이 함께 했다.



첫째 날(만남의 날)

2월 26일 새벽 5시 30분까지 인천공항 만남의 장소에 집합시간 엄수하라는 당부 또 당부가 있었다. 대구 동기들은 새벽 1시에 단체 출발해서 예정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아래층 푸드코너에서 케익&커피로 피로를 푸는 중이었다. 오신열 동기는 미리 전날 상경하여 인천 아들네에서 왔다고 해서 여러 동기부인들로부터 앞으로 신세대 시아버지 노릇에 대한 충고(?)를 듣기도 했다. 서울에서 온 동기들과 모두 모여 서로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졸업 30주년 여행이 엇그제 같은데 5년이란 시간이 화살처럼 지난 것 같으니 나이 탓인가(?). 30주년 코타키나발루 여행 때는 많은 동기들이 참여해서 왁자지껄했던 데에 비해 이번은 휴식이라는 컨셉에 맞게 소박한 소규모여행이 될 것 같다. 총무 권종국 동기 말에 의하면, 성적순으로 똑똑한(?) 동기들만 추려서 가느라 애를 먹었다고 해서 여기 모인 사람은 모두 44회 동기 중 공부 잘한 사람이 되어 한바탕 웃었다.

아침 8시, 인천공항을 출발 약 4시간 후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마카오의 모습도 10년 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여기저기 우뚝 선 카지노, 리조트와 공사중인 건물들로 다소 어수선했고 역시 중국의 거대한 자본의 힘이 함께 느껴지고 있었다. 시내로 들어와서 첫 점심은 포르투갈식(마카오는 1,500년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반환됨) 식당에서 포르투갈 맥주로 모두 건배!!! '만나서 서로 반갑고 즐거운 여행과 추억을 위하여!!!' 전날 수면부족으로 인한 약간의 피로감이 시원한 맥주로 모두 날아간 것 같았다. 숙소인 베네치안 리조트 규모가 워낙 큰데 비해 운영 시스템은 원활하지 못해 체크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듯해서 일단 다시 시내 관광 후 체크인



하기로 했다.

먼저 성바울성당으로 고고~~ 마카오의 상징이 될 정도로 유명한 세계문화유산으로, 화재로 성당 전면과 계단만 남아있어 절묘하게 창문과 뒤쪽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으로 유명해진 것 같다. 1835년 의문의 화재 이후 176년 동안 성당 전면만 유지, 지탱되고 있게 해둔 마카오의 문화보존 정신이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번 여행에 동기들 중 우연인지 유난히 가톨릭 신자가 반을 넘는다. 성당 전면의 66개 계단에서 각각 기념촬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어마어마한 인구를 실감 또 실감. 겨우 겨우 단체사진 촬영에 성공. 계단아래는 각종 먹거리 가게로 꽉 차있어서 중국의 자본주의 힘을 실감나게 해주었고, 유명하다는 에그타르트(퍽퍽하지도 않고 말랑말랑한 게 매우 맛있었다)도 먹어보고 다시 성바울성당에서 세도나광장(마카오의 중심)으로 가는 길은 육포거리로, 가게마다 거리에 나와서 육포를 나눠주는데 여기서 몇몇 동기는 이산가족이 될 뻔했다. 세도나광장의 물결무늬 타일 바닥은 사진으로 봤을 때 더 아름다운 것 같고, 실제로는 많은 인파와 세계 명품 상가로 둘러싸여 유럽 변화가로 착각할 정도였다. 인파에 밀려 동기들은 하나둘 건물바닥에 줄줄이 주저앉아 잠시 휴

식을 취하고 있었다. 다시 관음당으로... 마카오 최대의 600년 이상 된 관음불. 거대한 삿갓 모양의 향이 타면서 내는 연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1884년 청나라가 미국과 처음 우호통상조약을 맺은, 양국대표가 싸인한 테이블도 만져보고... 정원에는 연인과 함께 기도하면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는 '연리지', '연인의 나무'도 있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베네시안호텔~~ 이곳이 꽃보다 남자로 너무 유명한 베네시안호텔인데 호텔이라기보다 거대한 왕국같았다. 호텔 안에서 쇼핑, 카지노, 식사, 관광...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해놓았다. 저녁은 호텔 내 Bamboo식당에 갔다. 해물 등 다양한 뷔페식당인데, 사모님들끼리, 남자동기들끼리 남녀로 갈라져버렸다. 자연스럽게 남편 흥인가, 자랑인가 헛갈리는 화기애애한 얘기꽃이 피기 시작하고, 남자동기들은 브라보 술잔이 돌기 시작했다. 밤 늦게 동기들만 한방에 모여 다음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날

이곳 마카오는 일요일 미사가 없다고 하니, 가톨릭 신자 동기들이 김대건 신부가 교육받은 성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신자가 아닌 일부 동기도 합류 택시를 타고 도착해 성당을 둘러보는 중에 한국에서 파견된 신부님을 운 좋게 만났다. 김대건 신부 등 한국초기 신부님들의 이곳에서 공부했던 당시의 재미난 에피소드와 함께 역사에 대해 설명을 주셨다. 동기들의 진지한 모습과 의대동기 졸업 35주년 여행으로 이곳을 찾은 것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즉석에서 일요일 미사 집전을 해주겠다고 웃을 갈아입고 오셨다. 동기들과 사모님들 각각 미사역할을 분담해서 감동적인 미사를 올렸으며,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미사 예배였으리라.



그리고보니 미니골프 예약 시간까지 너무 촉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저녁시간까지 개별 자유 시간. 호텔 내에 곤돌라에서 작은 음악회가 있고 김광훈 동기가 작은 음악회 막간에 반주에 맞춰 관광객을 대표해 '오 솔레미오'를 열창했다는데... 나는 그 사모님과 방에서 수다 떠느라 보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저녁은 불고기 한정식으로 반가웠다. 총무님께서 어렵게 케익을 장만(한국이 너무 좋다. 여기는 케익 하나 구하기도 너무 어려움)해서 조영채 동기 진갑과 이석균 동기 사모님의 생일 축하를 할 수 있었다. 어느새 마카오에서의 마지막 저녁 만찬이라 모두 아쉬워했지만 특히 사모님들이 더 아쉬워했다. 그래서 밤에 박광우 회장방(여기는 노래방이 없었다)에 모두 다시 모이기로 하고 마카오 가면 꼭 보라는 버블쇼를 보러 호텔로 돌아왔다.

CITY OF DREAM에서 버블쇼 - 용의 눈물 서서 보는 3D 입체영상. 360도 벽면이 화면으로 거대한 바닷속 한가운데 서있는 듯했다. 인어, 해파리, 문어가 나타나고 모두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마지막에 거대한 용의 눈물이 내려오고 다음에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돈벼락이 와르르... 카지노에서 대박나라는 의미인가? 실제 호텔방으로 가는 길에 동기들 바로 카지노로 직행, 나중

들은 얘기로 처음 잘 나가던 동기도 좀더 욕심내다 결국 빈손. 이용렬 동기는 여기서 판 거금(HKD 1,000)을 즉석에서 회사, 그날 밤 마지막 파티에 술값으로 사용해 모두를 기쁘게 해주었다. 이용렬 동기에게 다시 감사드립니다. 밤 10시경 박광우 회장님 방을 아지트로 하여 사모님들이 먼저 속속 도착했으나 모두 남편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회장님은 그 넓은 카지노에 흩어져있는 동기들 찾아 데리고 오느라 고생하였다. 파티 술은 각방에 비치되어있는 호텔 음료와 양주로 했다. 어느 듯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고 또 내일은 일찍 홍콩으로 출발해야 하므로 마지막 정리를 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홍콩 가는 선착장에 도착하여 조금은 지루한 입국 수속 후 홍콩 시내 관광. 중식으로 홍콩 딤섬요리를 먹으러 갔다. 이 식당은 중국 부유층이 주로 오는 곳이라고. 오신열 동기와 이정권 동기는 검은색 의상과 등근 배로 누가 봐도 중국 부유층일 수밖에 없었다. 오신열 동기의 가족 잠바와 모자는 동기들 모두 탐냈었다. 점심 후 홍콩의 해안선을 따른 빌딩을 구경하고 다시 리펄스 베이와 탄하우유사원, 스탠리마켓을 둘러보았다. 이제 오늘 밤이면 돌아가는 시간이라서인지 모두 조금 피로한 기색이 보인다. 저녁을 한식 또는 중식으로 할 건지에 총무님은 민주주의식 투표를 하니 절묘하게 몇몇 기권과 함께 동표가 되어 다시 2차 의견수렴으로 한식으로 낙착. 저녁 식사 후 홍콩의 그 유명한 야경을 찾아 2층 버스를 탔다. 정성과 오신열 동기가 순간적으로 2층에 탄 걸 잊어버렸던 모양이다. 갑자기 '버스기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모두 박장대소했다. 시내야경은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고, 계약과 달리 전속 2층 버스가 아님을 김광훈 동기와 총무가 알아차리고 즉각 항의하니 가이드가 급 사과. 대신 버스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김광훈 준비위원, 권종국 총무님 덕에 우린 눈먼 도둑을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홍콩의 야경 하이라이트인 빅토리아피크로 갔다. 홍콩야경은 수많은 빌딩에서 쏟아내는 불빛의 조화로 백만불이라는 상징적 단어로 표현된다. 바람이 심하게 불긴 했지만 모두 야경을 사진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마카오로 가서 한국으로 간다. 늦은 밤 시간이라 배에는 몇몇 중국인 외에는 우리 동기들만 타고 있었다.

짧은 여행기간동안 많은 추억을 남긴 여행이었다. 무엇보다 동기들을 만나 같이 시간을 공유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박광우 회장은 아드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여행에 참석했고, 이상숙 동기는 여행 초기부터 식중독 증세로 내내 고생했는데 도착하고 연락해 보니 집에 계신 남편(박준식 선배)도 똑같은 증세로 같은 시간 동안 고생하셨단다. 여행 출발 전 먹은 굴이 문제임이 밝혀져 역학 조사는 집안에서 종결되었다. 동기들이여!! 부디 건강에 주의하시고 더 가까운 곳으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시다.



49회 졸업 30주년 기념 인도네시아 발리 섬 의료봉사 및 여행기



글 _ 송중원(49회) 동문

준비

작년 연말 총회에서 회장이 되고 나서, 평소에 생각하던 우리 동기들 해외 의료봉사 이야기를 꺼냈다. 매년 해오던 해외 의료봉사이기에 나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엄두가 안 나는 모양이다. 우선 올해 1월에 신년회를 하면서 대충 계획을 설명하고 3월에 번개모임 후 슬슬 사업을 시작한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Manado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한 김영혁 고문님(공군대령 예편)을 통하여 대상지를 섭외하도록 부탁한다. 인도네시아 의사들과 유력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분이다. 그리고 1차 봉사활동 참가자와 2차 여행 참가자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한다. 일단은 신청해도 나중에 취소해도 된다는 미끼(?)에 처음엔 너도나도 신청하고 6월에 전용기 좌석이 몇 개 안 남았다는 메시지에 놀라서 또 몇몇이 마지막에 참여의사를 보내온다. 6월 말까지 봉사 14명(부인 포함), 후발대 22명, 총 36명이 신청하였다(아이고 머리아 이 많은 사람들을 우야노). 역시 모든 행사엔 돈 문제가 심각하다. 5년 전에 25주년 행사하고 2,000만 원쯤 남아있지만 다 써버릴 수도 없고 약값, 수술물품, 환자들 마취비 및 병원비, 일반 물품, 투어경비, 30주년 기념파티, 비행기 및 운송비, 호텔, 식대, 기타 등등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회비만 받아가지고는 남아있는 돈 2,000만 원 다 써도 모자라겠다.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후원금 모금. 보나마나 갈 때쯤 돼서 취소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동 후원금 정도는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원금 모금을 시작하니 여행에 참가하는 권세일, 이재경이 50만 원씩 선뜻 내주고 참가 못하는 이광열이 50만 원, 김호준, 박장환, 신세종, 박무현, 이승철, 김기산, 박기홍, 이정국이 30만 원씩 내주어 분위기가 슬슬 올라간다. 얼마전, 미국에 있는 이난영 동기라 사칭하면서 동기들을 사기치려는 여자를 적발하여 동기들에게 즉시 주의경고문을 날린 덕분에 사기당할 뻔한 동기들이 또 후원금을 보내온다. 후원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체 동기들에게 후원금 모금 현황을 마치 재시 성적 발표하듯이 문자메시지로 바로 알리니 처음엔 주저하던 동기들이 하나 둘씩 후원금을 보내온다. 내가봐도 돈 내라는 소리보다 무섭다. 강구태 라이온스 총재가 못 견디고 100만 원, 그렇게 해서 적든 많은 후원금 보낸 동기들이 자그마치 54명, 총 1,415만 원. 그래도 모자라는 건 모아둔 돈을 쓰기로 결정하니 일단 안심

이다(매일 통장 들여다보며 후원금 확인하는 이종영 총무의 눈알이 돌아간다). 7월 중순경에 중부 발리의 Tabanan병원에서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왔다. 의료진들 license 내기 위해 영문졸업증명서, 전문의 자격증을 scan받아서 e-mail로 보내고 발리관할 주지사에게 영문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낸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지배를 400년 이상 받아 제도가 유럽식이고 특히 행정절차와 공문서가 매우 까다롭다. 약품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제약회사들에게서 협조를 받으려니 요즘은 절차가 무진장 복잡하다. 강철형이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협조가 안되는 약들은 사야 된다. 이종영 총무와 서류작성하고 후원금 확인하고 참가자와 후원자 변동사항을 excel file에 입력하고 거의 매일 메시지 날리고, 수술물품들을 준비하는 것은 윤실장 일이다. 7월에 들어 개인사정으로 빠질 사람들은 빠지고 정리가 되어간다. 빠지는 사람들은 나한테 미안해하는데 나는 속으로 즐겁다(후원금 낼 사람 늘고 참가자는 적정수로 정리되고). 7월부터는 봉사참가자들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약 분쇄기와 포장기 등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들고 가자고 김종서가 주장해서 현지가면 어느 정도는 다있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처음엔 봉사참가자가 의사 9명, 부인 5명으로 보조 인원이 충분했는데 핫바지 방구 새دت 다 빠지고 의사 6명만 싱글로 참여한단다. 의사 6명이면 진료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도와줄 보조 인원이 하나도 없으니 문체고 단체 비행기 값 할인도 못 받게 생겼다. 총무는 약사와 간호사를 데리고 가자고 한다(돈이 어데 있노). 8월 초에 준비모임을 하다가 이종영 총무가 윤실장이 업무를 준비해서 잘아니까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자고 거품



물고 주장하니(안 그러면 총무 본인이 고생) 강철형, 김종서, 후발대로 오는 관식이까지 같이 가지고 압력을 넣어 성사시킨다. 일 도우러 가기 때문에 회비면제라고 해도 윤실장은 부담된다며 총무에게 회비를 입금시킨다. 그래서 1차 진료진은 나와 이종영 총무, 박철희 교수, 강철형 교수, 최영철 원장, 김종서 원장, 윤실장이다. 그래도 7명이라 우리 일을 도와주시는 김고문님이 자기를 포함해서 자비로 가족들까지 봉사에 참여시켜 단체 할인 최소인원 10명을 맞춘다(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복 많이 받으세요). 출발 며칠 전에 마지막 모임을 갖고 후발대 책임자로 김정식에게 인원점검과 자축파티용 소주 조달의 막중한 업무를 맡기고 박스를 점검하니 자그마치 20개(총 110개



품목으로 다음에 봉사가시는 분들은 49회 발간 기념앨범에 상세히 있으니 참조하세요). 8월 21일 새벽 4시에 만나 전세 리무진버스에 짐을 싣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한다. 인천공항에서 김영혁 고문님 가족과 합류하여 탑승수속을 하는데 짐이 많이 초과되어 돈을 더 내야하지만 인천공항 안 기부담당자가 나와 해결해준다(역시 세상은 험있고 볼 일이다). 아침식사 후 11시 15분에 가루다 항공기로 이륙하니 다들 새벽부터 설쳐 잠이 들었다. 여행의 마지막까지 우리 일행과 환자들에

게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교회, 성당, 절에 다니는 동기들이 많아 보험을 여러 군데 들었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고 잠이 저절로 온다(예수님, 성모마리아님,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라). 6시간을 날아와 발리 섬의 덴파사 공항에 도착하니 입국장에 Dr. Boy가 나와있다. 짐이 많아 통관을 무사히 하는 것이 봉사활동의 성과를 가른다. 이 전에 방글라데시 봉사활동 갔다가 짐을 몽땅 압수당해 쓰지도 못한 경험이 있다. 김고문님이 잘 아는 Mr. Salomo의 친동생이 옛날에 발리지역 사령관을 해서 미리 손을 썼단다. X-ray 기계를 다 통과하고 나오려는데 실무자가 잡는다. 약품 등이 많아 새로 검사 다해야 된단다. 김고문님이 이리저리 전화해도 시간만 갈뿐 요지부동이다. 200불을 김고문님에게 건네며 조용히 주라고 하니 5분 후 웃음 띤 얼굴로 유유히 세관을 빠져 나온다(Money talks). 발리는 지금이 건기라 덥지도 않고 가장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 발목 골절상으로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휠체어를 타고 나온 Tabanan병원의 Dr. Patra 병원장이 반갑게 맞아준다. 인도네시아식 발음이라 약간 알아듣기 힘들지만 다들 영어를 잘한다. 두 대의 병원차로 약 한 시간 반을 꼬불거리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작년에 신설된 제2병원이었다. 진료실과 약제실 기타 수술실을 점검하고 내일 수술 가능한 환자 4명을 선정한 후 Nirwana호텔로 와서 Dr. Patra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Tabanan병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의 봉사활동 취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식사 후 내 방에 모여 내일 일에 대해 간단히 의논한 후 방을 치우는데 이 총무는 벌써 기절하듯이 잠들었다(예구 저 노무 화상 누가 안 잡아간다).

진료



8월 22일 월요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뷔페를 먹고 8시에 병원으로 출발했다. 제2병원은 논밭의 한가운데 우선적으로 2층 건물 두 동을 짓고 가운데는 1층 복도(회랑)를 통해 연결된다. 정원에 간이 천막을 쳐두어서 이미 주위 지역에서 주민 40~5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cleft lip 등 총 4건의 수술을 준비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첫날이어서 외래는 총 67명 환자를 보고 오후에 마쳤다. 약제실에서는 윤실장, 김고문의 부인과 이간호사가 익숙한 솜씨로 약을 포장하고 있었고 이종영은 약제실 앞에서 환자정리를 잘해주고 있었다. 오전 중에는 박철희, 강철형, 최영철 셋이서 시내에 있는 약 200병상 규모의 제1병원에 가서 현지 전문의들과 입원 병실을 둘러보고 환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다음 날 오전 중에 전립선 비대증과 거대한 방광결석을 수술하기로 하였다. 첫날 우리 봉사단의 활약은 다음날인 8월 23일자 'Bali Post' 라는 신문에 3단 기사로 진료모습의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다. 신문은 소개하기를 무료치료뿐만 아니라 그들은 의료장비와 약품들도 가져와서 기증하고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의 선진의료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는 Patra 병원장의 말도 인용하였다.

둘째 날, 8월 23일은 아침 7시에 호텔에서 출발하여 Patra 병원장의 권유로 시내 제1병원의 아침 조회에 참가했다. 병원장 이하 의사, 간호사, 등 전 직원이 아침 조회를 하고 있었다. Patra 병원장이 인도네시아 말로 한참 동안 혼시 비슷한 말을 한다. 이어서 영겁결에 마이크를 받아 경북 의대 49회 동기회 의료봉사단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씩 소개한 후 봉사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좋은 유대관계를 바란다는 즉석 스피치를 하



여 환영을 받았다. 조회의 끝은 모두의 합창노래로 마치는데 그 모습에서 발리는 질서와 조직력이 통하는 곳임을 인식시켜 주었다. 조회를 마치고 제2병원에 돌아오니 아침부터 병원 정원과 2층 대합실에 사람들로 꽉 찼다. 이날도 4건의 수술을 하였고 김종서, 최영철은 외래진료에 바쁘고 박철희는 시내의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11시경에 돌아와서는 외래진료 거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강철형은 팔골절된 지 한 달이나 방치된 Galeazzi's fracture 외에도 두 건의 수술을 더 하였다. 오후 2시경에는 Tabanan 시장이 시공무원들과 취재진을 대동하고 방문하였다. 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정치인 집안의 30대 중반의 미녀 시장이다. 점심에 29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신



예비역 공군대장인 김성일 총장님이 병원을 방문하였다. 물론 이번 의료봉사에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분이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참관하게 된 것이다. 오후 4~5시경까지 진료와 수술은 계속되었고, 이날 총 외래환자만 207명이었다. 모두가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보람된 하루였다.



셋째 날, 8월 24일 수요일. Patra 병원장의 관심과 성의 때문에 총 209명의 외래 환자들을 순서대로 잘 진료할 수 있었다. 환자들의 대부분이 농사와 기와제작 같은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관절염이 많았고,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많았으나 지속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피부병이나 무좀이 거의 없는 것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더위 때문에 몸을 매일 2~3번씩 씻는다고 하였다(피부과 약을 처방해준 정경재가 발

리에 와서 개업하면 말아 묵기 십상이다). 진통제, 소화제 계통의 약은 그 많던 약이 소진되어 마지막에는 많이 처방을 못하였으나 피부연고와 항생제는 남았다. 대합실에는 계속 우리의 수술 장면이 TV 화면에 보여지고 있어서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구경하고 있었다.



점심에 멀리 Poso에서 환자들이 비행기타고 도착했다. 10살까지 cleft lip을 수술받지 못한 소녀는 입술이 많이 벌어져있어서 수술하는데 애먹었다. 두 번째 환자는 cleft palate fistula 환자로 옛날에 수술 두 번 받았는데 입천장에 구멍이 커다랗게 나있다. 두 시간 반 만에 드디어 구멍이 다 막혔다. 7시가 넘어서야 마지막으로 knee joint에 심한 contracture가 있는 소녀의 수술이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외과의사를 조수로 수술을 거의 끝내고는 마무리를 부탁하고 나오려니 성형외과 수술세트를 하도 탐내서 눈 딱 감고 주고 왔다. 김중서는 현지 약사에게 남은 약을 일일이 설명하고 영어로 써주다 늦어 9시 반쯤 Tabanan병원 staff들과 farewell party가 시작되었다. 준비해간 홍삼 선물세트를 주고 이런 봉사활동이 서로가 첫 시도였으나 모두가 만족스러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가지길 기대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483명의 외래환자 진료와 18건의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일을 적극 도운 Dr. Patra 병원장과 staff들 그리고 Dr. Boy, Mr. Salomo의 도움에 다시 감사를 드린다. 다행히 모든 환자들이 회복이 잘되어 만족한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

여행



다음날 8월 25일 오후 5시 30분, 공항에 도착한 후발대 일행을 태워 버스로 남동쪽으로 30분 거리의 Nusa Dua의 Ayodya Resort(구 힐튼호텔)에 도착했다. Nusa Dua는 동쪽 해안을 따라 호텔들이 길게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리조트 도시다.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는 서쪽 인도양에 면해있고 공항 바로 밑에 위치한 Jimbaran에서 즉석 해물요리로 즐긴다. Jimbaran의 식당들은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식사테이블은 해안의 모래사장에 있어서 저녁에는 일몰의 인도양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는 게 일품이다.

8월 26일, 오늘은 매우 바쁜 일정이라 아침식사 후 9시에 중부내륙에 위치한 Ubud의 원숭이사원에 갔다. 도로가 대부분 이차선인 관계로 체중이 심해 2시간의 운전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버스 안에서 잠자거나 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



었다. Hotel management 석사출신이라는 40대의 여행가이드 Mr.Tresna는 발리의 역사, 인종, 지리, 종교에 장례풍습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화제가 떨어지면 질문하라고 부추긴다(하도 박식해 Professor Tresna로 별명을 지었다). 그의 끊임없는 설명을 자장이 삼아 잠이라도 청하려 하면 권세일이 버스 문 앞에 자리잡고는 한국서 가져온 소주에 Bintan맥주로 폭탄주를 제조해서 실새없이 잔을 돌린다. Ubud에서 원숭이들에게 작은 바나나를 나눠주며 놀다가 다시 2시간 버스를 타고 서쪽 인도양변에 있는 Tanah lot으로 갔다. 바닷가의 파도가 장관이다. 5m는 넘을 것 같은 파도들이 해안으로 밀려오는데 절벽에 부서져 물안개가 사방에 자욱하다. 이곳은 서핑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절벽 위 사원으로 유명한 Pura Uluwatu의 일몰이 아주 좋다고 해서 버스로 1시간 이상 달려가는데 가이드가 원숭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 오전 Ubud사원의 원숭이들이 양반이라면 이곳 원숭이들은 깡패에 소매치기란다. 안경, 목걸이, 샌들을 뺏어 도망가고 사원관리인들에게 돈을 주어야 되찾을 수 있다. 버스를 내려 절벽사원으로 가면서 다들 막대기를 하나씩 주워 들고 원숭이가 오면 혼내주겠다고 호기를 부리며 휘두르는 시늉을 한다. 절벽 위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는데 관광객도 많고 원숭이도 많다. 호텔로 돌아와 저녁 7시에 모두 그랜드볼룸에 모여 30주년 자축파티가 시작되었다. 식사와 여흥을 시작하기 전에 이재경이 공항서 사 온 21년산 그랜피디으로 다함께 건배를 한다. 식사가 진행되고 술이 오를 때 격려차 참석하신 김성일 전 공군참모총장님을 필두로 김영혁 고문



님, 의료봉사팀, 후발대 순으로 한 말씀씩 한다. 돌아가며 노래방기계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다 보니 12시가 훌쩍 넘는다. 박철휘, 김중서, 이종영은 후발대로 부인들이 오자마자 12시만 넘으면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코빼기도 볼 수 없는 공통점만 생각한다. 대부분 방으로 돌아간 후 이관식, 권세일, 이재경, 이봉우, 이신하는 송중원 방에 모여 포카가 발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을 시작한다. 3시 30분까지 이어진 토론판에서 이신하가 승자였다고 소문이 났으나 사실은 이신하는 파산하고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사실은 내가 40만 원 따서 금메달). 이관식은 권세일이 하도 심하게 코를 골아서 내 방으로 다시 도피하여 이봉우를 전화로 불러 짐승 3명이 동틀 때까지 남은 술을 다 정리했다.

마무리



8월 28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대구로 오는 전세리무진버스에서 마지막 자축파티다. 함께 간 부인들께서 한 말씀씩 하신다. '내 남편(한창호)이 자랑스러워요', '연말에도 꼭 불러 주세요(봉우 부인)', '남편(박철휘)의 강요로 끌려왔지만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동구의사회장(이신하)이라 의사회 행사에 자주 따라 갔지만 재미없고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언제 또 만나나요?(이종영 부인)', '앞으로 더 많이 불러주세요(김중서 부인)', '사진기 들고 다음에도 꼭 따라올게요(만진 부인)'. 결론은 별로 기대 안하고 따라왔는데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단다. 부인들이 만족이라면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는 성공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49회 동기들 모두는 비록 저마다의 일들로 바쁘고 시간여유가 없어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찬 가슴이 있다는 것을. 이런 봉사 후에 가족들과 함께 즐긴 휴가 또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다. 동기들아, 앞으로 자주 만나서 즐겁고 보람되게 남은 삶을 함께 살아보자!

린자니화산에 다녀오다



글. 사진 _ 손효돈 (54회) 동문

대구시의사산악회는 대구에 있는 의사 산악동호인 모임이다. 대구의사산악회라고는 하지만 회를 발족한 김철수(42회) 동문이 경북의대 출신이다 보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들이 주를 이룬다. 현재 김원섭(48회) 동문이 산악회장을, 최영철(49회) 동문이 부회장, 강인구(51회) 동문이 등반대장, 손효돈(54회) 동문이 총무를 맡아 회를 이끌고 있다.





▲ 이경호, 정해익, 권흥기, 김원섭 등문

1,3째주 일요일에 산을 오르는 대구의사산악회는 매년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해외원정 등반을 하는데 올해는 제191차 산행으로 인도네시아의 린자니화산(3,726m) 트레킹을 다녀왔다. 7월 31일 일요일 오후 3시 대구공항에 집결하여 4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 다음날인 8월 1일 새벽 1시 인도네시아 발리의 덴파사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총 16명. 이중 경북의대 출신 의사가 9명이



▲ 린자니산 2,600미터 베이스캠프

었다. 발리의 호텔에 여장을 풀고 두어 시간 눈을 붙인 후 그 다음날 새벽 우리의 목적지인 린자니를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발리공항에서 롬복공항으로 가서 린자니산의 트레킹 시작지점인 샘바룬 라왕까지는 승합차로 세 시간 정도를 이

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아랫마을에서 우리 산행의 동반자인 가이드 2명과 포터들과 합류해서



▲ 박재울, 서경진 등문

정오경부터 산행이 시작되었다. 베이스캠프인 팔라완가 2야영장까지의 길은 그야말로 땀벌, 화산지형인 이곳은 커다란 나무가 없어 그늘 또한 없다. 그 땀벌 아래를 걷고 걸어서 석양이 비추는 린자니의 안부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일곱시경. 초생달이 비추는 린자니 호수 위 해발 2,600미터의 베이스캠프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는다. 각 텐트마다 2명씩 8동의 텐트가 우리들의 숙소다. 밤하늘에 별이 많기 보다 온 하늘이 별로 가득한 밤이었다. 내 평생 그렇게 많은 별은 처음 본 것 같다. 수면부족과 고산증세로 올라가는 내내 힘겨워하던 일행들



▲ 포터의 짐을 진 김원섭 회장님



▲ 창립회원인 김철수 고문님

은 모두들 깊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 두시 기상하여 가볍게 요기를 하고 정상으로 출발했다. 전체 16명 중 12명이 정상에 도전했다. 화산분출로 생긴 칼데라 호수의 외벽을 따라 걷는 길은 어둡고 가파르다. 헤드랜턴 불빛과 별빛에 의지해서 산을 오르다 보니 정상 도착 전 능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구름 뒤로 보이는 것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알 수 없는 일출이다. 금방 도착할 것 같았던 정상은 눈으로는 가까운 듯 좁혀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화산지형이라 미끄럽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두 발짝 올라서면 한 발짝 만큼이 미끄러져내리는 급경사의 지형이다. 3,700미터 정도 오르니 고산증세인지 두통과 함께 숨이 찬 증상이 느껴진다. 정상까지의 등반시간은 선두 4시간, 후미 5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작년 해외산행이었던 백두산만큼 시야가 좋고 멋지진 않았으나 화산폭발로 인해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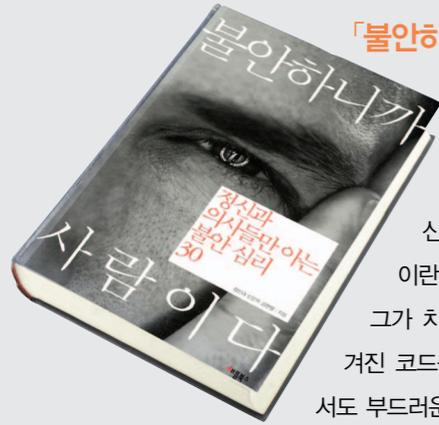


▲ 실무책임자 강인구 등반대장님

된 아낙호수와 중간에 또 하나 더 있는 작은 화산은 처음 보는 풍경이라 신비할 따름이다. 린자니 정상 등반 후 약 6시간 정도를 하산, 정상에서 신비롭게 바라보았던 아낙호수에서 야영 이틀째를 맞이하였고 노천온천 폭포에서 긴 여정에 지친 몸의 피로를 풀었다. 그동안 설레이는 기대와 함께 오랜시간 준비하였던 인도네시아 린자니화산 트레킹은 그렇게 잘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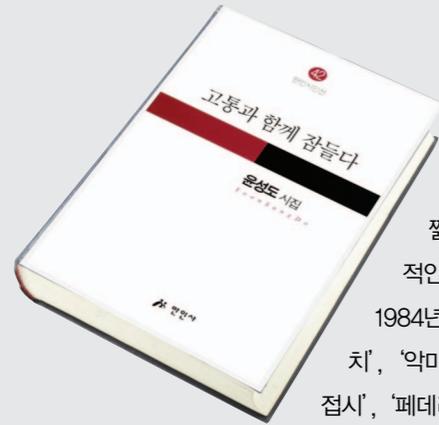
처음 도착하였던 발리에서 다시 하루를 묵으며 이국적인 발리의 해변과 야자수가 둘러선 호텔 수영장, 절벽사원과 빠당빠당 비치 등 관광을 하고 8월 6일 인천을 거쳐 무사히 출발지로 돌아왔다. 2002년 창립된 우리 대구시의사산악회는 어느덧 200회째 산행을 앞두고 있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오르고 1년에 한 번씩 해외등반도 간다. 산을 좋아하는 우리 동문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 정신과 의사들만 아는 불안 심리 30」

김현철(67회, 대동병원 진료과장) 동문이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 정신과 의사들만 아는 불안 심리 30」(애플북스)을 발간하게 되었다. 불안은 왜 생기는 것이며, 우리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마주해야 할까? 신경증 및 인격 장애 환자를 주로 치료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불안과 사랑이란 주제를 정신분석 및 정신의학의 도마 위에 거침없이 올려놓는다. 여기엔 그가 치료해온 여러 임상 사례는 물론이요, 영화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에 숨겨진 코드를 낱알이 분석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사랑과 불안을 예리하면서도 부드러운 필체로 전개하고 있다.



「고통과 함께 잠들다」

윤성도(38회) 동문이 네 번째 시집 '고통과 함께 잠들다' (만인사)를 펴냈다. 윤성도 동문은 의학도로서 일상에서 접하는 인간의 고통 문제를 짧은 시 84편을 통해 선보였다. 「고통과 함께 잠들다」에 담긴 시들은 서정적인 요소를 많이 배제하고 철학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다. 윤성도 동문은 1984년 시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시인(詩人)은 나귀를 타고', '주인 없는 망치', '악마의 트릴'과 에세이집 '간지럼 타지 않는 여자', '외로운 늑대와 고독한 접시', '페데리코의 탄식'을 출간했다.

1인 1계좌 모금 현황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월 1만 원 자동이체 약정운동에 동문 모두가 참여합니다. ※()는 계좌 수 (2011년 9월 기준)

- 13회 박희명
- 16회 홍선희
- 17회 최경달
- 18회 이강수, 이동식, 이상재, 이성구, 전기영, 조운해
- 19회 김익동, 김한동, 류명하
- 20회 정우
- 22회 정희곤
- 23회 김희철, 오학술
- 24회 정균용, 함덕상
- 25회 박정열, **변기수(10)**, 이정호, 장경식, 최형곤
- 26회 곽각순, 김재수, **박노택(5)**, **이우홍(2)**, 정희교, 황일우
- 27회 김경수, 박근수, 박재호, 성창섭, 손두목, 이병채, 이재복, 이재양, 이철상, 정승환, 정창근, 조한제, 최수년, 하근수, 황한호,
- 28회 곽동수, 구중수, **김선홍(2)**, 김재식, **김형규(2)**, 김희교, 노수열, 염우권, 윤영길, 이상계, 이재창, 정용국, 한근섭
- 29회 김두희, 김홍웅, 박병덕, 박상근, 박영춘, 박진상, 백영수, 송화복, 예민해, 유병철, 이강목, 이견화, 이경수, 이승도, 이종수, 이진관
- 30회 권득기, 권용주, 김규호, 김도상, 김병화,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배병원, 소원영, 신은식, 안원호, 오장석, 이상원, 이상화, 이웅길, 이종길, 이종택, 이학수, 전병석, 조세환
- 31회 김봉석, **백봉수(2)**, 안재두, 이상원, 이용권, 이재현
- 32회 **김희태(5)**, 신현국, 이규신, 정재영, 최동하
- 33회 김이민, 김형우, 이학용, 최명부
- 34회 강행복, 고경환, 김수길, 김충남, 최호섭
- 35회 김대조, 김무현, 김상도, 김영희, 김용언, 김장환, 도종웅, 박동술, 박영남, 이두룡, 이원순, 장총광
- 36회 견일수, 박형규, 백용현, 손건부, 이창수
- 37회 권광우, 김정만, 김종률, 박기호, 박노선, 박동성, **백인기(3)**, 신홍식, 안영규, 이귀란, 이동구, 전수한, 최용환, 하청길
- 38회 김관식, 김규태, 김태근, 이성동, 이승호, 이원기, 정영복, 최성협
- 39회 강덕식, **곽정식(5)**, 문정웅, 박노삼, 박순천, 박진현, 전의식, 조남근
- 40회 고재휴, 곽재영, 김성호, **김옥동(2)**, **김완섭(2)**, **김일경(2)**, 김재승, **김중환(5)**, **김정균(10)**, 김홍조, 김희숙, 도영구, **도재욱(2)**, 박영호, 서정규(2), 손승원, 유병욱, 윤병철, 이승기, 이학서, 장길동, 전석길, **전재은(2)**, **정재화(3)**, 조규홍, 한승세
- 41회 강임주, 김경년, 김곤홍, 김성학, 김세환, 김시열, 박경동, **박근목(15)**, 박윤규, 박일수, 배재기, 배효근, 백명규, 백옥지, 변인수, 안기현, **안성열(10)**, 여운재, 오상영, 윤영국, 이견수, 이동수, 이상도, 이상범, **이상훈(2)**, 이재우, 장봉국, 장한기, 최광식, 최덕현, 최한용, 홍정길, 황규홍
- 42회 김용탁, 김의홍, 김종식, 김철규, **김철수(2)**, 문덕균, **변영우(10)**, 서석주, 송재권, 은종대, 이광열, **이규인(2)**, **이상호(5)**, 이정근, **임해수(5)**, 정무달, **정제명(2)**, 최병연, 최원석, 추연만, 현성택
- 43회 권중수, 김기주, 김보완, 박노문, 박동철, 박재식, 박재우, 방인화, 백태원, 손경식, 우성구, 윤덕구,

1인 1계좌 모금 현황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월 1만 원 자동이체 약정운동에 동문 모두가 참여합니다. ※()는 계좌 수 (2011년 9월 기준)

동창회는 1인 1계좌 장학금 3,000계좌를 목표로 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들께서 1인 1계좌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력이 되시는 동문은 2계좌 이상 가입해주시면 장학금 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장학금 참여 동문님들에게 일련번호가 새겨진 장학금 참여 포스터 2매를 발송하였으며 많은 동문님들의 병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변영우 동창회장

- 43회 이광숙, 장병준, 장사상, 전상식, 전진곤, 정화선, 조동규, 조병권, 조영철, 지용철, 최시호, 하인선
- 44회 강신수, 곽규식, 김경선, 김광훈, 김법완, 김재도, 김지홍, 배형일, 백상현, 백운이, 심일청, 오천석, 이경화, 이석균, 이웅렬, 이윤상, 이정권, 이정규, 임탕식, 장태식, 전명숙, 조영래, 함인석, 홍승근
- 45회 고봉환, 김광우, 김도원, 김성화, 김용순, 김종훈, 김행미, 김홍태(2), 남상재, 박진석, 배선익, 백철운, 신현주, 안도환, 유성호, 유완식, 이기호(2), 이병수, 이원길, 이종태, 이호성, 정만진, 하종섭, 허정욱, 황성규
- 46회 고병구, 김석찬, 김세웅, 김인택, 김중구, 박태정(3), 성주경, 이인걸(11), 이재백, 이재석, 이창, 정준현, 조시복
- 47회 강상대, 김용신, 김장희, 김종호, 남복동, 백승인, 신순희(2), 유영구, 이재준, 이준희, 전민, 정만홍, 정영환(2), 정지윤, 조희중(2), 최광호
- 48회 권영철, 김복연, 김원섭, 김인호, 김일환, 김지성, 김항재(7), 류수현, 문병천, 박준호, 박창용, 서경진, 손계학, 손혜경, 신명숙, 안문영, 이경열, 이규원, 이내호, 이동현, 이숙희, 이왕복, 이용수, 이우형, 이윤순, 조영섭, 최성만, 탁기식, 하정상, 홍순도
- 49회 강명수, 권세일, 김종서, 김진우, 김현준, 김혜영, 김호준, 박원대, 박장환, 박정태, 배경일, 배홍갑, 서병현, 서장수, 손석수, 손찬락, 송국현, 신재균, 안욱, 오수희, 오영철, 이관식, 이봉우, 이정국, 임재양, 정상윤, 천종률
- 50회 강동기, 곽정호, 권영근(2), 길영태, 김규상, 김금주, 김삼열, 김상유, 김재연, 김재황, 김정철,

- 김종윤, 김종홍, 박문흠, 서노교, 서역수, 서정욱, 안기영, 유빈서, 이동길, 이유철, 이의효, 이재태, 정병욱, 조현숙, 지동하, 최영택, 추동호, 함희원, 황용순
- 51회 강성희, 강인구, 강재원, 고삼규, 권오중, 권일훈, 권태우, 김광만, 김대연, 김동석, 김무원, 김병현, 김병화, 김인영, 김장락, 김재왕, 김태준, 박만규, 박봉기, 박성민, 방종경, 서순애, 성후식, 손희철, 송광익, 양상호, 양원병, 오동원, 유경재, 윤여득, 이경민, 이경수, 이경영, 이기만, 이명우, 이상복, 이성희, 이우녕, 이원석, 이재구, 이현수, 임영미, 임청호, 장기호, 장대성, 장병원, 정수영, 정웅표, 정철희, 조종래, 지성구, 최성근, 한금주, 한상철, 허달영, 홍성태, 홍영애, 황영목
- 52회 강민구(3), 곽동협(5), 곽시영, 곽철승, 구본신(3), 권경훈(5), 권순환(2), 기세길(5), 김경식(3), 김기홍, 김동억, 김상근, 김순덕, 김승일, 김영조(2), 김인산, 김재홍, 김종일, 김종호(2), 김철규(3), 김현수(3), 나건연(2), 남문진(2), 남혜주, 도은식(5), 민병국, 박동보, 박승준, 박우용, 박일순(3), 박재용, 박재울(3), 박창근(2), 배성일(2), 백승찬(2), 손구현(5), 이기훈(2), 이상평, 이성원(2), 이순화, 이장철(2), 이재동, 이정안, 이종명, 이종오, 이택후(2), 장원표(2), 장해운(2), 전상중(3), 전상훈, 전시열, 정경희, 정명희, 정용식, 정종철(2), 조병채, 조완석(2), 최병훈, 최상호(5), 최일석(3), 최정규, 추진신(2), 하정희, 함소희(3), 홍성권, 황윤진
- 53회 강현구, 강희천, 권영식, 권종설, 금학조, 김경률, 김규태, 김동찬, 김명성, 김세연, 김숙영, 김시오,

- 김영호, 김원태, 김재선, 김정란, 김정용, 김종원, 김희진, 나병천, 류형우, 박민하, 박병규, 박세영, 박세협, 박창순, 배재용, 변정환, 서경란, 서중환, 서창수, 손수준, 손윤호, 손진호, 송경은, 송정흠, 신언성, 신창재, 신현석, 안중걸, 여성우, 오두중, 오연희, 윤상열, 윤창섭, 이경욱, 이구희, 이대원, 이명구, 이민석, 이민재, 이성구, 이정기, 이종기, 이창영, 이철, 이태규, 이형욱, 정순택, 정호영, 조현열, 차호, 최성관, 현향숙, 홍경순, 홍기영, 홍주희, 황순구, 황준하
- 54회 강대욱, 경희수, 권영수(2), 권영오, 김동철(2), 김병곤(2), 김수동, 김시열, 김영진, 김영환, 김인겸(5), 김재홍, 김준욱, 김태형, 김형표, 남윤성, 도용희, 류춘욱, 마도훈, 박남운, 박순우, 박순원, 박정배, 백효중, 서강석, 성기영, 성승모, 성열오, 손병우, 손효돈, 신영철, 심영보, 양완석, 여민희, 오승열(3), 오태윤, 유병애, 유영수, 윤경철, 윤정수, 이경호, 이상민, 이승재, 이영미(2), 이영석, 이은영, 이재흠, 장금미, 장인석, 장현정, 정동일, 정두선, 정상득, 정일경, 정창수, 정홍우(2), 조근태, 지용대, 채영수, 천종욱, 최동호, 최진교, 최창혁, 하승우, 허용진, 홍성범, 황보근
- 55회 구분섭, 김종명(10), 김문수, 김병용, 김상훈, 김성엽, 김승업, 김정수, 김창호, 김태상, 문성두, 배도호, 성영호, 오형호, 윤광명, 이석중, 이성락, 이재혁, 이정형, 이종훈, 이종형, 장재권(2), 장필식, 전일훈, 정세주, 정태호, 최규석, 최병호, 한수일, 현명섭(5), 황형식
- 56회 강창성, 권태균, 권태환, 금동윤, 김병철, 김익수,

- 김인환, 김정국, 김정수, 김창희, 남창우, 도황, 박완섭, 박재현, 이국형, 이양수, 이운기, 이종곤, 임동건, 천근수
- 57회 김동희, 김성중, 김수영, 김영애, 김용태, 박병준, 박성식, 박준구, 박태인(2), 박형근, 박형근, 서중수, 성이경, 송준화, 우연조, 이덕희, 이병현, 이승걸, 이양일, 이종민, 정춘식, 주성진, 천임순, 최성곤, 허현준
- 58회 구기영, 권오수, 김문규, 김성기(5), 김준홍, 김탁관, 류상건, 박서정, 박용주, 박정석, 박창열, 배성곤, 서영익, 서을주, 서효숙, 신현수, 윤상흠, 이대원, 이상한(10), 이상원, 이주형, 이현춘, 정병룡, 한영철, 황정현
- 59회 강원순, 강준형, 권성우, 김경환, 김대현, 김삼식, 김성우, 김정균, 김정민, 김준근, 김철현, 김하균, 김학수, 노동우, 류영호, 문상웅, 박미영, 박용진, 백승희, 백인화, 서인경, 서중산, 서혁준, 손성대, 안형수, 유선오, 유진태, 이강경, 이강룡, 이기준, 이명선, 이미정, 이상미, 이원호, 이장규, 이춘대, 장지훈, 전은주, 전홍배, 정기하, 조영미, 지문중, 차승익, 최현곤
- 60회 강천일, 권대구, 김경주, 김기연, 김보미, 김소희, 김정구, 김정근, 김정연, 김진수, 김태석, 김항진, 문덕복, 박찬정, 서현주, 손봉준, 신동필, 신상훈, 신재필, 이경림, 이광자, 이숙희, 이응배, 이태현, 정기재, 정동휘, 정보우, 정재호, 조유숙, 한정훈
- 61회 강지원, 강현욱, 김광훈, 김기영, 김병준, 김수지, 김영탁, 김준홍, 변재호, 송광수, 신태현, 이영실, 이종우, 이준화, 전영훈, 정진용, 제석준(2), 하영애, 홍순만

1인 1계좌 모금 현황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월 1만 원 자동이체 약정운동에 동문 모두가 참여합니다. ※()는 계좌 수 (2011년 9월 기준)

- 62회** **곽선영(5), 권성희(2), 남근하(5)**, 박성빈, 박진형, 손희강, 안원일, 이건희, 이응창, 정태균, 조병욱
- 63회** **곽경필, 구지영, 권소정, 김건엽, 김은경, 김종열, 김찬덕, 나승찬, 노현주, 손재희, 유은상, 윤영목, 이정미, 장우호, 정승희, 조재현**
- 64회** **권동수, 박선희, 박성현, 박재홍, 반정민, 서문정, 신경순, 신무철, 심삼도, 여원옥, 이규엽, 이명권, 이영두, 이정호(2), 이창환, 이호원, 전성우, 제갈양진**
- 65회** **곽경화, 김주경, 김찬중, 김태훈, 류정임, 박대홍, 이동규, 이상민, 이선호, 정원욱, 조준형, 조희준, 채포희**
- 66회** **김상욱, 김세영, 김영은, 백승훈, 윤창호, 이상철, 이수현, 이진우, 정영원(10), 조민현**
- 67회** **문성수, 문준호, 송승훈, 이승훈, 이용직, 이정은, 전보영, 정운선, 조지형, 황승욱**
- 68회** **남순영, 성우진, 이경열, 이원채, 이재일, 정병진, 하성조**
- 69회** **배영조, 이학성, 장윤환, 정덕원, 조민정**
- 70회** **김유경, 신영아, 최희정**
- 72회** **최원호**
- 73회** **서창우**
- 74회** **강경모, 권문혁, 김동협, 김수정, 김주희, 김한바로, 김현숙, 김혜원, 김호찬, 김홍식, 문나연, 문유호, 박가영, 박동찬, 배종덕, 서관용, 서안나, 서원우, 성수경, 송재민, 신미선, 신수정, 심민성, 안용철, 윤지원, 이정훈, 임재광, 장은정, 장정식, 전고운, 전범수, 조윤정, 조인지, 지성근, 최연경, 최재영, 최재혁, 현효진, 홍영기**
- 75회** **이경민**

- 76회** **강민지, 강종완, 김민철, 김성욱, 박효민, 이경민, 이준호, 장세영, 황두연**
- 77회** **고경균, 김미선, 김민지, 김세현, 김준영, 김지현, 노진, 배수현, 석준호, 안수현, 여인환, 이경규, 이용훈, 이정원, 이현정, 홍채문**
- 78회** **권영기, 김덕영, 김도훈, 김병철, 김보연, 김숙경, 김아람, 김정환, 김지은, 김창균, 김창연, 김현미, 나주용, 박은희, 박정규, 오홍근, 이숙희, 임정아, 전호중, 정윤영, 정현철, 조효정, 진영주, 채상훈, 천혜진, 최영연, 최주열, 최진혁**
- 79회** **권수현, 권오영, 김도형, 김명수, 김재우, 김한나, 박경민, 박아영, 손기창, 송승호, 양영애, 윤가영, 이경진, 이은지, 이종욱, 이현주, 임장환, 최선하, 최우곤, 황승현**
- 타교** **김갑철**

장학기금 납부명단

(2011년 10월 기준) 1인 1계좌 포함



2011년 장학기금 모금현황 2011년 4월 이후 (단위: 원)

성명	기수	금액	납부일자
변영주·이숙희 동문	45, 48	10,000,000	4. 28
정순택 동문	53	5,000,000	4. 29
김인섭 동문	48	3,000,000	5. 3
이양수 동문	56	1,000,000	5. 4
54회 홈커밍 행사	54회	50,000,000	5. 31
송문원 동문	29	2,000,000	7. 1
박근목 동문	41	5,000,000	7. 5
권도엽 동문	69	1,000,000	7. 26
홍원표 동문	56	3,000,000	9. 8
윤봉호 동문	58	1,000,000	9. 14
김지화 동문	58	1,000,000	9. 14
변영우 동문	42	15,000,000	10. 6

54회 홈커밍 장학기금 모금현황 (단위: 원)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강대욱	400,000	김준욱	400,000	신영철	400,000	장귀련	400,000
강영모	400,000	김태형	400,000	심영보	400,000	장태원	400,000
경희수	400,000	김형표	400,000	안영호	400,000	정규식	400,000
권삼	400,000	김홍환	400,000	양완석	400,000	정동일	400,000
권영수	400,000	남윤성	400,000	엄재화	400,000	정두선	400,000
권영오	400,000	도용희	400,000	여민희	400,000	정상득	400,000
김건오	400,000	류성렬	400,000	오승열	400,000	정일경	400,000
김덕영	400,000	류성훈	400,000	오태윤	400,000	정창수	400,000
김덕윤	400,000	류춘욱	400,000	유병애	400,000	정홍우	3,000,000
김동철	400,000	마도훈	400,000	유영수	400,000	조근태	400,000
김동훈	400,000	마성대	400,000	윤경철	400,000	주대현	400,000
김문연	400,000	박남운	400,000	윤영팔	400,000	주인수	400,000
김병곤	400,000	박순우	400,000	윤정수	400,000	지용대	400,000
김수동	400,000	박순원	400,000	이경호	400,000	채영수	400,000
김승호	400,000	박정배	400,000	이동현	400,000	천종욱	400,000
김시균	400,000	박한배	400,000	이미경	400,000	최경수	400,000
김시열	400,000	백효종	400,000	이상민	400,000	최광진	400,000
김영진	400,000	서강석	400,000	이상화	400,000	최동호	3,000,000
김영환	400,000	서창식	400,000	이승재	400,000	최진교	400,000
김원엽	400,000	서희석	3,000,000	이영미	400,000	최창혁	400,000
김윤수	400,000	성기영	3,000,000	이영석	400,000	하승우	400,000
김은배	400,000	성승모	400,000	이은영	400,000	홍성범	400,000
김의현	400,000	성열오	400,000	이재흠	400,000	황보근	400,000
김인겸	400,000	손병우	400,000	이현영	400,000	황정한	400,000
김재홍	400,000	손효돈	400,000	이효성	400,000	총	50,000,000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전1회		남영소	100	김성화	41	최경달	41	류명하	20
권상규	20	박윤갑	10	김홍복	20			박금자	11
최익수	10	박정득	20	김인현	10	18회		박상성	25
전3회		석종수	20	김철희	20	김경배	10	박성대	10
김명한	10	안지열	20	김환룡	10	김방영	100	박해수	10
1회		육돈상	100	남택승	10	김세진	10	박홍열	20
배강흔	10	이성관	200	박두복	10	김영곤	30	서병도	10
송명도	1,020	10회		백병택	20	김윤준	320	서욱	200\$
2회		김규성	10	송조영	120	김중명	210	서휘수	20
신학진	500	김승태	20	이종탁	20	김진욱	120	손장락	20
이종구	20	김종일	20	이한기	30	김찬규	25	양학도	12
3회		김태수	20	차승만	10	김천수	20	오상건	25
배상우	20	이동식	320	허탁	20	김형수	20	유명하	46
이규원	1,000	최근유	100	16회		문시갑	520	유호열	330
임종철	100	홍기윤	120	고태영	20	민병훈	30	이광직	20
정덕용	50	11회		곽영수	120	박동수	20	이상한	20
4회		김위상	120	김만재	440	박종길	20	이시춘	20
김경훈	120	김한수	100	김익영	20	박충근	100	이종담	12
5회		신대식	20	김집	420	손해룡	30	전동우	12
김회규	10	이원기	120	김판조	20	신동우	220	정기홍	20
이영진	10	12회		석영관	120	양묘소	20	정훈모	10
이주걸	400	박우순	10	송재식	100	오성호	20	조현숙	100
최효종	20	안형채	20	신동수	120	유춘식	200\$	주용환	20
허균	20	오성근	20	양구열	20	윤능기	10	최지환	20
6회		원병식	100	이강백	100	윤정우	100	황우익	20
김기출	30	윤병문	14	정재홍	110	윤주덕	200\$	황흥주	10
박하운	20	이대부	20	홍선희	151	이강수	562	20회	
배중호	20	이상원	120	홍순옥	120	이근영	50	김기협	10
정환탁	100	이종수	20	황기석	210	이동식	259	빈남수	130
7회		정필수	120	17회		이명화	200	오창열	100
김만달	4,510	최기대	300	김지영	120	이상재	11	이기영	20
남궁균	20	한동섭	100	김태훈	500\$	이숙희	20	이해관	30
박언서	10	13회		남태현	120	이인희	20	정병화	25
배치도	10	배희명	665	박진우	120	이재근	20	정우	71
서정해	20	서순봉	616	배기환	20	이철우	320	최보영	20
최석덕	20	송윤규	10	이필우	100	이태호	210	21회	
8회		이달희	20	백의태	220	전기영	75	권용환	10
박노옥	20	최치상	100	서주익	20	정동춘	20	김동성	10
오복수	20	황남덕	10	서창석	20	조운해	13,446	김성대	100
전도기	10	14회		소인영	20	지성해	200\$+100	김종덕	120
허동섭	100	강호균	20	안두홍	210	허규숙	200\$	박성열	120
9회		김명호	230	오삼달	20	황남철	30	송창화	117
권오기	10	김영적	20	오상진	120	황훈	20	유태기	20
권오성	120	김영진	20	이원형	10	19회		장병국	145
김정만	20	서철성	120	이기영	300	권재성	10	정창용	20
		이기창	10	이동경	20	김성중	25	차충석	200
		최철권	20	이상영	120	김성호	20	최병욱	20
		15회		정재규	110	김영수	20	22회	
		곽수돈	20	정환국	110	김윤자	10	강현식	10
				주영은	10	김익동	464	고석경	100\$
				지중민	10	김한동	251	곽외경	20
				채의업	10	김형근	20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곽종원	20	김영배	12	곽각순	54	27회		최우진	24
김연호	200\$+200	김완식	20	김강오	20	강신학	10	최창록	10
김영권	20	김용희	10	김근주	24	강진무	10	최치교	200
김태순	10	김원수	20	김병희	10	곽판달	20	하근수	63
박충서	48	남용진	20	김상하	10	권성진	120	하재창	10
서영태	20	노영하	120	김원배	20	김경수	175	홍성달	23
서원수	20	도창기	20	김장훈	500	김성진	20	황한은	10
이동희	10	문세광	110	김재수	121	김재호	200\$	황한호	20
이열희	10	민병택	10	김종구	100\$	김찬우	110	28회	
이형수	20	박양규	20	김종대	20	박갑석	20	강경훈	200\$
임학권	520	박영관	10	김종환	220	박근수	27	고재우	1,00
정우섭	10	박영해	10	김진원	100	박우춘	20	박재호	38
정희곤	216	박정열	238	김치익	20	배광원	20	구종수	151
최현호	200	박준식	20	김태환	20	배효인	25	권달만	100
23회		박찬우	20	김희덕	10	서동룡	10	권세훈	20
김달수	20	변기수	350	박노택	1,430	서정구	20	김병일	120
김재하	100	변동길	20	박병기	20	성창섭	47	김봉기	10
김종태	10	서성탁	200	박상빈	20	박성규	100	김상완	200\$
김희철	235	서영욱	10	박영훈	11	박영훈	11	김석구	30
오학근	451	서재주	10	박홍진	20	양남도	200\$	김선홍	42
오학술	77	소병국	20	백충기	2,020	예학성	220	김용명	100\$+220
이상준	320	송길수	20	변재욱	20	오준섭	10	김재식	10,163
장익주	100	신도관	20	서동익	120	유대우	200	김창배	100
최호섭	21	안재원	20	서치균	100	유시홍	200\$	김형규	218
24회		안치완	20	성창수	20	유우호	20	김희교	152
김경환	1,000	예훈해	100	손건	10	윤수한	20	노수열	42
김한빈	20	오태환	20	송경오	300	윤익진	220	문한규	20
박무철	20	윤병오	11	송준영	10	이교연	20	민종기	10
백성기	100	윤희웅	20	이광호	20	이만선	37	박양화	60
손태중	210	이달원	20	이달원	20	심재기	20	박진홍	20
신장곤	100	이선규	20	엄영세	20	엄영세	20	배종호	20
양달선	10	이수동	320	윤건호	100	윤건호	100	서재관	100
이동영	50	이원순	5	윤주식	10	이승현	120	여병택	200\$
이진희	20	이정호	282	이성구	50	이영식	20	여용연	5,000\$+120
이현식	20	이해영	20	이우홍	78	이재범	20	염우권	151
이흥기	20	장경식	46	이원순	20	이재복	45	오범희	20
전택준	220	전성균	100\$	이은화	20	이재인	171	유광수	20
정균용	170	정낙진	200\$	이재운	20	이재인	100	윤영길	241
조성래	142	정상진	20	이표진	220	이중길	20	이규원	20
조준승	10	정일동	20	임태규	100	이철상	41	이상계	4,055
최동익	10	정재훈	192	정봉조	525	이학구	20	이상국	200\$
한경식	20	조중환	10	정승화	10	이현우	110	이재규	100
함덕상	66	차상호	100	정원근	20	장경식	20	이재창	123
25회		최형곤	172	정태호	20	전열경	20	이한철	20
강중신	20	하용마	150	정명교	174	정명교	20	이화동	11
곽석순	20	한덕기	20	조기환	25	한덕기	20	임병우	100\$
김경식	20	한석문	20	조종수	100\$	조종수	100\$	정용국	153
김광	20	허만하	10	조태호	510	조병호	20	정준택	20
김규진	200\$	황규택	20	진정환	20	조장제	44	조근제	20
김동한	20	황현규	120	최성구	10	조한제	49	천덕녕	20
김병태	20	26회		최홍두	10,180	최성근	100	최세영	20
김상욱	10	강두경	10	홍근식	20	최성욱	20	최종수	200\$+300
		강성규	320	황문수	20	최성천	50	한근섭	116
				황일우	277	최수년	147	홍진권	14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홍형식	30	정덕재	30	신현원	200\$	박로종	100\$	김경남	140
29회		정병락	200\$	안원호	53	박승국	10	김경현	100\$
강상원	10	정일현	100	안중호	1,300	박시균	100	김동진	20
강석지	200	정준모	110	오장석	373	백봉수	118	김동환	120
강진성	10	정호문	20	윤석하	110	변달섭	20	김성룡	20
강태생	20	조광재	250\$	이두현	20	서구덕	20	김승팔	10
곽연식	100\$	조수호	20	이병철	120	서구원	100\$	김정만	120
곽현주	100\$	조홍래	200\$	이병호	120	석재수	200	김정환	100\$
김광덕	20	한용섭	20	이상원	63	손승원	20	김창연	20
김광식	20	허태득	30	이상화	21	송계원	100\$+15	김태한	20
김두희	255			이승욱	320	신현찬	100\$	김홍석	20
김병권	10	30회		이시래	10	심달보	20	김홍태	100
김병만	10	강석현	10	이영우	20	안재두	5	김희태	361
김성배	20	강자구	100\$	이종길	65	안태룡	200\$	박노대	100
김수생	200\$	강창수	10	이정창	10	양성기	20	박승보	10
김인홍	10	권득기	1,173	이종길	63	엄정섭	200	박정하	20
김진대	200\$	권영진	20	이종택	265	오정대	20	배정동	20
김홍웅	36	권용주	64	이진영	51	유동림	23	서석권	10
나진훈	210	금동혁	20	이치민	200\$	유상호	100\$	서태준	3,000\$
남상하	20	김규찬	20	이학수	75	유진우	200\$	송종규	100\$
도사금	10	김규호	46	임상근	35	유환우	20	신기준	5
박무근	20	김도상	43	전병석	132	이동일	50	신현국	105
박병덕	143	김범주	200\$	전재규	10	이문규	20	신현수	20
박상근	66	김병화	273	정태수	20	이병철	10	오상완	400\$
박성득	20	김세현	23	정해관	200\$	이봉조	100	오지섭	2
박영춘	48	김영기	20	정해돈	20	이상원	143	유안연	20
박자근	87	김영수	15	조세환	353	이석윤	200\$	유영선	10
박진상	38	김원훈	20	지연숙	200\$	이양우	20	이규신	43
백부기	20	김의원	71	최익수	10	이영해	200\$	이성수	100\$
백영수	77	김정휘	20	최종태	20	이용권	81	이수영	10
백종흠	100	김판석	20	최창대	20	이재호	20	이재수	200\$
서보상	20	김형우	3	최형달	100	이종만	200\$	이정운	200\$
설수길	20	노대식	200\$	한홍달	20	이채현	173	이종학	510
송문원	1,000	노명호	50	31회		이희석	20	이주원	20
송화복	53	노재문	300\$	강반	20,000\$+300	임정규	200\$	장세국	110
신수범	20	노태균	100\$	곽달현	20	정복수	20	장수일	10
심재훈	200\$	류동근	20	구자훈	10	조명래	100\$	전종수	20
예민해	133	박수연	65	권병배	200	지성우	20	정기준	20
유병철	253	박재석	20	권병연	11	지용한	100\$	정인호	20
윤성직	100	박현동	100\$	권병연	11	최규태	5	정일수	17
이강목	78	박희성	100\$	김경수	200\$	최영달	100	정재영	203
이건화	53	박희인	20	김광태	20	최종두	100	정철용	20
이경수	171	배병원	73	김병호	20	추병근	20	조대현	20
이만희	100\$	배성호	20	김봉석	32	허영재	100\$	조복래	20
이보근	20	백정대	10	김승래	10	황규성	32	조태환	10
이상석	20	서정욱	10	김영명	200	32회		채병식	300
이상렬	20	서찬수	20	김재찬	100\$	강대명	200\$	최동하	573
이승도	32	석진길	20	김종모	20	강창근	200\$	최원환	20
이재춘	20	소원영	275	김준	150	고재명	200\$	최종명	20
이종수	73	손대익	100\$	김창환	100\$	고철연	260	한영기	20
이진관	118	송석호	120	남재만	20	고철연	260	황인원	20
임종수	20	송준철	20	노인환	200\$	구문근	30	33회	
장원익	20	송희재	100\$	류동림	20	구욱현	100\$	강재도	10
장태수	110	신은식	672	류성하	100	권영신	5	고광빈	100\$
				박경화	2	권영엽	10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권광보	220	황보상	20	정해진	200\$	정기용	10	김광수	20
권오석	540	34회		정호성	200\$	정수진	4,600\$	김명환	10
김상철	310	강행복	241	조남재	100\$	정정길	10	김신동	10
김수용	1,016+100\$	고경환	61	조수자	110	정태수	100\$	김연택	20
김수철	20	고충환	200\$	최성정	200\$	지창준	10	김정만	21
김영훈	100\$+10	권기호	400\$+200	최용교	20	최서규	20	김종률	435
김용배	1,020	권석찬	100\$	최호섭	151	최유근	100	남영근	20
김유사	10	김규성	20	편영식	10	최임석	200\$	남팔수	10
김이민	56	김기춘	200\$	하길풍	20	허련	100\$	노태영	100\$
김이호	11	김덕영	100\$	하재덕	200\$			문원만	20
김정두	20	김동윤	200\$	한기창	10	36회		문종웅	122
김종목	20	김세호	20			강병조	10	박기호	23
김한주	200\$	김수길	173	35회		견일수	53	박노선	223
김형우	140	김원재	120	김백현	100\$	권국현	120	박동성	42
김홍	100\$	김유문	110	고윤표	20	김무룡	20	박성대	10
김희훈	100\$	김종섭	120	김광준	200\$	김병욱	100\$	박영철	200
박문재	120	김충남	173	김대조	51	김정휘	100\$	박의현	110
박양서	10	나우연	110	김무현	73	김주록	100\$	박홍진	10
박용기	10	남상우	200\$	김문양	200\$	노관식	10	백인기	169
박원길	10	남위현	20	김부년	20	문시언	220	서영수	200\$
박재훈	100	문정오	200\$	김상도	130	문종천	100\$	성기태	2,00
박진웅	10	박내홍	100\$	김성원	100\$	박노춘	29	신기동	200\$
박정길	20	박대선·정근영	2,400\$+300	김성환	20	박도수	400	신홍식	429
배억두	100	박정태	200\$	김승조	200\$	박형규	71	안영규	46
배원길	100	서무삼	10	김영철	100\$	백용현	275	안진상	10
서정목	20	서상하	120	김영희	53	백철홍	20	오현수	56
손순천	200\$	손릉교	100\$	김용언	167	손건부	53	유상박	100\$
송달호	100	손성준	100\$	김윤수	20	손영우	10	윤용삼	120
신태규	10	손위익	120	김정환	55	송풍호	10	윤재호	200
왕의석	20	신인건	200\$	김태홍	20	신건석	100\$	이귀란	43
윤정자	100\$	신철야	100\$	김현석	20	심정택	20	이동구	333
이규보	10	안정홍	200\$	김훈남	230	염덕준	5	이원기	38
이동훈	120	오상유	220	노여주	200\$	윤정직	10	이원락	120
이석강	120	오영성	20	도종웅	47	이동행	50	이재욱	3,200\$
이수광	200\$	육정혜	200\$	류창수	20	이영하	10	이정현	200\$
이용웅	200\$	이학운	36	민병삼	120	이정범	120	이청혜	200\$
이죽내	10	이규청	200\$	박동술	853	이창수	96	이현웅	100
이환우	210	이기병	100\$	박종선	20	임종선	120	이홍일	2
임철	200\$	이길부	100\$	박순호	200\$	장기용	10	전수한	60
전명흠	20	이동형	10	박영남	93	장세찬	200\$	정구용	20
전무영	100\$	이영길	100\$	변승렬	220	장신형	120	정문화	20
전상연	20	이용준	20	서수지	10	장철광	100\$	정성수	1,020
전재욱	20	이용태	20	송영주	20	정수광	20	정윤기	1,000\$+336
정상립	110	이장박	20	송남원	10	정영기	280	조남제	20
정재룡	320	이재철	200\$	육정자	100\$	최희자	30	조수호	110
정중학	310	이정두	100\$	이두룡	45	최용환	100\$	최용환	151
정한진	10	이태열	10	이상준	300\$	최연일	100\$	최준영	10
정해명	20	전상훈	14	이상일	147	최영인	100	최현만	10
조상래	100	정국	100\$	이원순	1,142	허진철	10	하정길	129
최대식	100\$	정근영·박대선	2,400\$+300	이장백	220	황재욱	20	황명주	40
최명부	64	정상봉	10	이충일	100	37회		황한호	2
최태식	100\$	정영식	120	임무웅	200\$	강복수	115	38회	
탁원균	200\$			장병희	20	권광우	247	곽용철	30
홍래복	200\$			장총광	55	권육진	10	구본철	300\$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권정운	10	김인식	120	도영구	255	김준한	5	남해수	30
권철기	200\$	김희택	180	도재욱	82	김진만	55	문덕균	232
김관식	76	나기도	200\$	박병렬	158	김현철	62	방필영	20
김규태	58	도분순	20	박병철	220	류영석	20	변영우	9,781
김명석	200\$	문영길	10	박복음	20	박경동	54	서석주	155
김민상	100	문정웅	231	박소록	20	박근목	2,486	석준호	15
김상윤	200\$	박건정	2	박영호	175	박우현	10	송재권	77
김송명	10	박노삼	155	박종한	25	박윤규	155	신내철	100
김수	100	박란규	100	박준식	10	박일수	42	안치효	220
김유탁	100	박소천	294	배정인	10	박종인	30	유동명	40
김은상	20	박연목	120	서상룡	50	박효천	200	은종대	102
김춘탁	20	박진현	62	서정규	120	배상도	15	이광열	49
김태곤	63	서영호	20	서준수	20	배재기	376	이규인	96
김풍택	16	서인수	10	손승원	47	배호근	55	이병승	50
김흥대	20	안중철	3	유병욱	55	백명규	74	이상호	738
김희한	100\$	우원호	20	윤문길	150\$	백옥지	65	이정근	257
박동춘	110	윤동수	200\$	윤병철	55	변인수	36	이철재	50
박무길	100	이광백	200\$	이동화	50	서보양	15	임해수	270
박복환	10	이동민	10	이성환	100	서정희	300	전병길	5
박정한	100	이봉기	200\$	이승기	171	손수상	10	정무달	157
백성욱	200\$	이정무	100\$	이영현	120	안기현	30	정제명	310
서종우	100	전의식	21	이종술	150\$	안성열	550	정현수	50
송달원	10	정용한	20	이중희	250\$	여운재	53	조만석	100
안성훈	10	정재명	100	이학서	55	오상염	55	최병연	87
윤성도	10	정태훈	20	이호연	10	윤영국	55	최원석	66
이성동	48	정해건	105	장길동	55	은총기	34	최흥교	26
이승정	100	조남근	231	장상식	204	이건수	43	추연만	107
이승호	41	조호철	20	전석길	65	이동수	21	추우홍	50
이원기	267	조희웅	20	전재은	208	이상도	75	현성택	77
이일웅	35	최동수	100	정기환	10	이상범	65		
이장환	50	허동은	133	정봉진	5	이상훈	118	43회	
이정수	100			정영섭	100\$+1,000	이재우	55	권종수	55
이충길	10	40회		정재화	175	이태석	10	김건우	60
장성익	10	강달삼	20	조규홍	52	임만빈	10	김기주	20
전재복	10	고재휴	49	주종윤	10	임태진	10	김보완	95
정규용	200\$	곽재영	281	채종욱	120	장봉국	46	김수복	60
정병하	200\$	권오국	5	최수승	15	장한기	55	김여희	10
정영복	26	김병수	200\$	한경훈	180	최광식	153	박광서	20
정태진	200\$	김선우	100	한승세	87	최덕현	134	박노문	157
정호웅	100\$	김성호	53	허재경	200\$	최한용	57	박동철	41
지선득	20	김신근	5			하지운	45	박봉훈	30
최두석	50	김영규	10	41회		홍정길	65	박상열	200
최선길	20	김옥동	120	강임주	255	황규홍	24	박재식	81
최성협	41	김완섭	210	고복현	20			박재우	44
최영창	100	김은우	30	구자영	10	42회		방인화	21
		김일경	208	곽정재	10	배연수	60	배연수	60
39회		김재송	155	권태찬	10	백태원	64	백태원	64
강덕식	123	김종환	397	김문섭	5	손경식	48	손경식	48
곽정식	225	김주열	113	김병현	25	양원석	8	양원석	8
곽평순	20	김준기	250\$	김석원	28	오태원	100	오태원	100
권오갑	100\$	김정균	1,872	김성학	244	김의홍	106	우성구	55
김건희	20	김태우	1,200\$	김세환	43	김종식	53	윤덕구	31
김난희	100	김홍조	55	김시열	53	김진모	10	이광숙	58
김능수	10	김희숙	55	김영철	20	김철규	85	이규석	10
김완조	200\$	남재우	20	김원호	1	김철수	511	이상무	200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진식	200	조영래	47	김병준	50	곽완섭	30	박일형	15
임윤규	100	조영호	100	김석찬	142	권기영	10	박정세	30
임정근	49	한건호	50	김세웅	68	김광수	10	박준호	161
장병준	87	함인석	51	김인규	200	김교선	150	박창용	107
장사훈	158	홍승근	53	김인택	55	김수용	50	서경진	155
전상식	61			김일봉	30	김영근	30	서민호	10
전진곤	98	45회		김재룡	10	김용신	61	손계학	153
정화선	487	고봉환	97	김중구	81	김인주	100	손동렬	15
조동규	187	김광우	52	김홍	10	김정희	65	손명원	30
조병권	617	김덕하	100	김홍식	10	김제형	49	손은익	10
조영철	108	김도원	58	박승구	20	김종호	173	손혜경	43
지원철	10	김성화	36	박영모	50	남복동	57	신명숙	38
지용현	708	김용욱	10	박우순	30	박성배	10	안문영	41
최시호	258	김용순	41	박의수	10	박영복	30	이경열	61
하인선	20	김종훈	241	박태정	109	박종대	30	이규원	11
홍태근	30	김행미	65	반재울	30	백승인	85	이근대	100
황보백	60	김홍태	102	백승조	100	변진석	210	이내호	83
		남상재	51	백영일	150	송광순	10	이동진	30
44회		박용일	20	서성조	100	신순희	158	이동철	15
강신수	45	박진석	1,226	서재성	15	유영구	85	이동현	147
곽규식	41	배선익	45	성주경	83	윤경식	30	이수동	100
김경선	81	백철은	151	손재경	100	이상길	30	이숙희(변영주,45회)	
김광훈	205	변영주(이숙희,48회)		송가이	3	이숙형	30		1,025
김권배	10			송홍석	10	이재준	87	이연생	100
김법완	17	신현주	65	신세원	315	이준희	51	이왕복	106
김애라	10	안도환	57	오세진	230	장신민	30	이용수	40
김옥배	10	유병하	21	윤태현	30	전동석	10	이용우	30
김인호	10	유성호	40	이강일	30	전민	52	이우형	141
김재도	29	유완식	145	이병진	100	정만홍	29	이윤순	63
김종훈	80	이기호	83	이상도	10	정성광	15	이인환	10
김지홍	53	이달우	100	이상찬	30	정영환	371	장봉현	25
김택훈	10	이병수	121	이수정	20	정용재	30	전종완	100
박영석	14	이석형	20	이은기	20	정지윤	57	조영섭	41
박영재	37	이원길	67	이인걸	261	조승호	200	조지호	200
박완석	100	이종열	45	이장진	100	조희중	15	천병렬	15
박인규	10	이종태	51	이재백	382	최광호	45	최봉태	20
배옥석	10	이호성	50	이재석	71	최규태	10	최성만	52
백형일	151	전영준	10	이창	130	최재동	30	최세영	10
백상현	171	정기록	100	이창익	100			탁기식	57
백운이	68	정만진	36	이탁	10	48회		하정상	40
변영수	20	정희영	30	장기호	13	권영철	131	한승욱	30
심일청	1,035	최영욱	1,000	장재국	30	김기식	10	홍순도	42
오천석	53	하종섭	51	정선권	60	김복연	42		
이경화	46	허정욱	61	정준현	51	김원섭	87	49회	
이상수	10	허찬희	30	정철호	10	김윤년	10	강명수	69
이석균	357	홍영기	31	조시복	46	김인섭	140	강순병	110
이운렬	73	홍진교	3	차순도	10	김인호	112	강철형	10
이운상	1,325	황성규	53	채광수	30	김일환	248	고철우	15
이재민	30			최병희	30	김지성	81	권세일	123
이정권	57	46회		한기환	10	김창윤	30	김기산	310
이정규	50	강동구	100	황창하	200	김향재	203	김동규	50
이태성	10	강명석	100			류수현	144	김영환	100
임탕식	130	고병구	84	47회		문병천	153	김정식	160
장태식	52	권건영	10	강상대	41	민영기	100	김종서	1,157
전명숙	21	김대환	100	고순봉	60	박운정	100	김주호	10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김진우	81	김수천	100	김병현	31	최성근	39	손구현	130
김현준	11	김재연	137	김병화	69	최연극	30	심원보	30
김혜영	122	김재황	17	김인영	31	한금주	24	이기훈	54
김호준	272	김정철	11	김장락	54	한상철	45	이상평	26
김효석	30	김종윤	38	김재왕	189	허달영	283	이성원	54
문신길	30	김종홍	46	김태준	69	홍성태	39	이소화	27
문충열	100	김준식	10	김현구	30	홍영애	81	이장철	54
박원대	127	남필훈	30	문현창	13	황영목	24	이재동	29
박장환	20	박관규	10	박만규	39			이정안	27
박정태	37	박문흠	287	박봉기	139	52회		이종명	51
박철희	10	서노교	152	박상운	100	강민구	81	이종오	44
배경일	53	서억수	30	박성민	89	곽동협	135	이택후	78
배한익	15	곽시영	51	박윤현	13	곽시영	27	장원표	54
배홍갑	53	석대식	100	박은미	35	곽철승	11	장해운	54
서병현	30	손경락	30	박태준	30	구본신	81	전상중	81
서상일	140	손윤경	20	방종경	169	권경훈	135	전상훈	31
서상철	33	안기영	26	백승남	19	권순환	54	전시열	41
서장수	65	우영훈	10	서순애	54	기세길	135	정경희	26
손석수	75	유빈서	26	성차경	15	김경식	81	정명희	27
손찬락	157	이동길	41	성후식	72	김기홍	26	정용식	41
송국현	58	이만기	125	손희철	69	김동억	46	정종철	52
송원영	40	이성운	30	송광익	81	김봉재	2,000	정태훈	45
송재영	100	이유철	127	양상호	97	김상근	46	조병재	67
송중원	1,010	이의효	53	양원병	130	김성록	15	조완석	54
신제균	69	이인규	10	오동원	59	김순덕	144	최병흔	27
안욱	29	이재태	32	유경재	40	김승일	18	최상호	117
오성태	100	이정철	20	윤여득	69	김영두	130	최석용	1
오수희	12	이종근	200	이경민	82	김영조	54	최일석	81
오영철	153	정병욱	21	이경수	89	김인산	151	최정규	27
이관식	457	정병천	100	이경영	39	김재홍	29	추진신	54
이광열	200	조현숙	281	이기만	89	김종일	27	하정희	27
이봉우	46	지동하	43	이명우	147	김종호	54	함소희	81
이승철	100	최영택	26	이병태	30	김준우	100	홍성권	27
이정국	46	최재호	100	이상복	39	김철규	81	황윤진	27
임재양	155	추동호	41	이성희	184	김현수	81		
임효덕	30	함희원	46	이우녕	39	김효경	30	53회	
정상운	23	황용순	43	이원석	39	나건연	54	강현구	52
조영수	600			이원태	20	남문진	54	강희천	16
조정현	200	51회		이재구	155	남혜주	63	권영식	21
천만희	31	강성희	31	이현수	89	도은식	135	권종실	15
천종률	20	강수찬	30	이형종	100	마인열	21	금학조	15
천종율	29	강인구	61	임영미	1,021	민병국	27	김경률	15
최영철	100	강재원	39	임청호	39	박동보	26	김규태	28
홍상현	105	고삼규	439	장기호	20	박동우	1	김도현	100
박장환	1	권귀련	30	장내원	100	박승준	18	김동욱	30
		권석룡	30	장대성	96	박신영	1	김동찬	15
50회		권오중	39	장병원	39	박우용	27	김명성	15
강동기	37	권일훈	39	정경동	20	박일순	131	김세연	15
곽정호	43	권중혁	20	정수영	39	박재용	51	김숙영	27
권영근	34	권태우	39	정연웅	30	박재율	81	김시오	53
길영태	338	김경수	30	정웅표	39	박창근	54	김영호	46
김규상	19	김광만	84	정인권	300	배성일	54	김원태	25
김금주	29	김대연	39	정철희	39	배양규	6	김재선	5
김삼열	82	김동석	54	조충래	69	백승찬	268	김정란	15
김상유	40	김무원	89	지성구	69	백원진	120	김정용	15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김종삼	50	최성관	15	성기영	333	허용진	53	김범주	45
김종원	15	한창희	1,452	성승모	143	홍성범	70	김병철	12
김희진	15	현향숙	14	성열우	73	황보근	94	김영인	40
나병진	57	홍경순	46	손병우	93	황정환	67	김익수	105
류한업	15	홍기영	15	손효돈	97			김인환	12
류형우	114	홍주희	15	신영철	73	55회		김정국	51
박민하	46	황순구	13	심영보	86	강도원	5	김정수	45
박병규	121	황준하	18	안영호	40	구본섭	19	김창희	51
박세영	353			양완석	150	금종명	120	남창우	54
박세철	21	54회		엄재화	40	김문수	41	노명호	36
박창순	15	강대욱	61	여민희	70	김범진	30	노선주	13
배재용	21	강영모	40	오승열	81	김병용	77	노창	65
변정환	15	경희수	91	오태윤	73	김상훈	250	박완섭	65
서경란	39	권삼	55	유병애	150	김승업	46	박재현	21
서중환	384	권영수	48	유영수	77	김은영	25	박정철	100
서창수	14	권영오	91	윤경철	195	김은영	30	이국형	67
손경호	34	김건오	74	윤영팔	40	김정수	46	이양수	141
손구현	5	김덕영	40	윤정수	167	김정호	30	이운기	184
손수준	14	김덕윤	40	이경호	62	김창호	18	이종근	39
손윤호	45	김동철	90	이동현	40	김대상	46	임동건	53
손진호	51	김문연	40	이미경	40	김하식	200	전석구	100
송경은	46	김민수	30	이상민	194	문성두	12	조경신	50
송도영	30	김병곤	48	이상화	40	박영명	5	천근수	21
송정흠	15	김수동	93	이승재	44	박철호	30	홍원표	300
신언성	74	김승호	40	이영미	48	배도호	46		
신창재	15	김시균	40	이영석	94	성영호	52	57회	
신현석	15	김시열	44	이은영	44	신종근	20	김동희	37
안중걸	15	김영진	59	이재흠	116	오형호	46	김문규	15
여성우	41	김영환	193	이현영	40	윤광명	46	김성호	49
오두중	44	김원엽	40	이효성	40	이석중	51	김성호	50
오연희	14	김윤수	40	장귀련	40	이상락	12	김수영	22
윤상열	14	김은배	40	장금미	4	이수형	30	김영애	121
윤창섭	19	김의현	40	장인석	86	이재혁	31	김용태	87
이경옥	15	김인겸	569	장태원	40	이정형	46	김정열	50
이구희	115	김재홍	82	장현정	37	이종흔	57	동가진	30
이대원	51	김준욱	95	정규식	60	이충형	46	박병준	105
이명구	15	김태형	44	정동일	61	장세우	1	박성식	31
이민석	81	김형표	10,531	정두선	93	장재권	108	박준구	71
이민재	53	김홍환	40	정상득	65	장필식	41	박태인	21
이성구	41	남윤성	94	정일경	93	전일훈	139	박형근	60
이재동	5	도용희	93	정창수	76	정세주	20	서정근	100\$
이정기	115	류성렬	40	정홍우	339	정태호	57	서종수	84
이종기	53	류성훈	40	조근태	188	최규석	51	성이경	37
이창영	33	류춘욱	44	주대현	40	최병호	47	송준화	40
이철	15	마도훈	124	주인수	40	최을제	62	우언조	21
이태규	53	마성대	80	지용대	67	한석	26	이덕희	11
이형욱	15	박남운	298	채영수	222	한수일	40	이병현	51
장우호	6	박순우	44	천종욱	175	현명섭	148	이승걸	104
장유석	15	박순원	93	최경수	40	황형식	41	이양일	5
정순택	245	박정배	44	최광진	74			이종민	51
정호영	133	박한배	40	최동호	316	56회		이준호	13
조현열	15	백효중	73	최진교	145	강창성	55	정병화	30
조희태	100	서강석	72	최창혁	73	권태균	47	정춘식	46
차호	57	서창식	40	편도철	100	권태환	34	조경제	100
채석수	50	서희석	300	하승우	94	금동윤	17	주성진	52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천임순	30	김성우	19	김태석	46	홍순만	52	이은주	100
최도희	1	김정균	5	김항진	46			이정호	62
최상근	12	김정민	18	문덕복	18	62회		이창환	23
최형경	30	김종근	39	박찬정	52	곽선영	280	이호원	51
추성욱	30	김철현	48	사공미	42	권성희	15	전성우	51
허현준	56	김하균	12	서현주	46	남근하	90	제갈양진	61
		김학수	30	손봉준	46	문철준	100		
58회		노동우	47	신동필	46	박성빈	55	65회	
구기영	54	류영호	47	신상훈	19	박진형	153	곽경화	53
구태본	40	문상웅	11	신재필	51	손희강	26	김주경	7
권오수	20	박미영	21	이경림	46	안원일	53	김찬중	21
김문규	26	박용진	47	이광자	46	윤성민	15	김태훈	16
김문호	30	백승희	47	이숙희	5	이건희	53	류정임	41
김삼식	11	백인화	48	이영직	100\$	이수형	30	박대홍	12
김성기	25	변창렬	22	이응배	52	이응창	21	이동규	12
김영대	30	서인경	4	이태현	47	정태균	17	이상민	43
김준홍	5	서중산	47	임시수	30	조병욱	10	이선호	17
김지화	100	서혁준	39	정기재	46	한만식	20	이수현	6
김탁관	12	손성대	46	정동휘	6			장원욱	1
류상건	30	안형수	47	정보우	46	63회		정원욱	20
박기수	30	예미경	27	정재호	46	곽경필	11	조준형	27
박서정	21	유선오	39	조성	15	구지영	43	조희준	12
박소향	100\$	유진태	55	조유숙	46	권소정	18	채포희	5
박영진	100	이강경	17	한정훈	46	김건업	21	최세호	9
박용주	12	이강룡	21	홍은희	80	김은경	42		
박정석	57	이기준	39			김종열	47	66회	
박창열	51	이명선	47	61회		김찬덕	51	김나경	100
배성근	18	이미정	47	강지원	46	나승찬	11	김상욱	15
서영익	51	이상미	21	강진영	26	노현주	48	김세영	57
서울주	46	이영삼	30	강현욱	41	손재희	48	김영은	26
서효숙	21	이원호	19	김광훈	46	우창근	15	백승훈	24
신현수	20	이장규	49	김기영	12	유은상	51	윤창호	51
양은경	15	이춘대	47	김병준	12	윤영묵	48	이상철	37
오주현	15	장지훈	39	김수지	19	이정미	43	이수현	47
윤봉호	100	전은주	47	김영탁	7	이창환	29	이재혁	15
윤상흠	21	전홍배	19	김준홍	41	장우호	42	이진우	20
이대원	57	정기하	43	박선영	20	전태형	1	정영원	210
이상한	562	정정은	30	박진영	18	정승희	14	조민현	51
이상원	5	조영미	46	박현숙	21	정충일	100		
이주형	11	조재현	6	변재호	34	조재현	42	67회	
이현춘	10	지문종	15	송광수	56			김은주	6
정병룡	164	차승익	50	신태현	46	64회		문성수	51
최정일	50	최현곤	52	유길종	15	권동수	12	문준호	41
한영철	10			유택규	19	박선희	48	송승훈	17
황정현	48	60회		이병욱	15	박성현	17	이승훈	12
황정환	100	강천일	30	이영실	50	박재홍	12	이용직	17
		권대구	46	이정훈	31	반정민	52	이정은	35
		김경주	46	이종우	19	서문정	41	전보영	37
59회		김기연	46	이준화	57	신경순	12	정운선	37
강원순	20	김보미	46	전영훈	53	신무철	52	조지형	30
강준형	47	김소희	31	정진용	12	심삼도	35	황승욱	30
권성우	49	김정구	54	제석준	58	여원욱	21		
김경미	100\$	김정근	46	조명호	100\$	이규업	46	68회	
김경환	54	김정연	46	추호식	5	이명권	7	남순영	10
김대현	5	김진수	212	하영애	81	이영두	11	성우진	10
김삼식	28								

(단위 :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경열	32	문유호	57	김민철	39	나주용	15		
이원채	11	박가영	57	김상화	17	박은희	15		
이재일	16	박동찬	57	김석찬	6	박정규	15		
정병진	5	배종덕	57	김성욱	26	오홍근	14		
하성조	11	배지혜	60	김호진	7	이숙희	15		
		배현석	25	박기현	13	임정아	14		
69회		서관용	57	박효민	39	전호중	15		
권도엽	100	서안나	57	신영민	8	정윤영	15		
김성욱	13	서원우	57	양동진	8	정현철	15		
김홍식	31	서현애	26	이경민	39	조효정	15		
배영조	52	성수경	54	이준호	20	진영주	15		
이학성	11	손원수	37	장세영	39	채상훈	15		
장윤환	11	송재민	47	채수열	19	최혜연	13		
정덕원	29	신근영	37	황두연	39	최영연	15		
조민정	19	신미선	57	황인아	7	최주열	15		
		신수정	56			최진혁	15		
70회		신지연	9	77회					
김유경	5	심민성	47	고경균	26	79회			
신영아	19	안용철	57	김동섭	1	권수현	3		
최희정	45	오정은	37	김미선	27	권오영	3		
허준	31	윤지원	57	김민지	27	김도형	3		
		이정훈	26	김성진	1	김명수	3		
71회		이재윤	37	김세현	27	김재우	3		
김희준	31	이현철	16	김영중	6	김한나	3		
최지영	31	임재광	57	김준영	27	박경민	3		
		임현정	37	김지현	27	박아영	3		
72회		임혜원	32	노진	27	송승호	3		
박선민	16	장은정	57	배상근	6	윤가영	3		
석양기	75	장정식	56	배수현	27	이은지	3		
최원호	10	전고운	27	석준호	26	이현주	3		
		전범수	52	송준혁	7	임정환	3		
73회		정윤령	15	안수현	24	최선하	3		
서창우	23	조윤정	57	여인환	27	최우곤	3		
		조인지	57	이경규	27	황승현	3		
74회		지성근	57	이용훈	27				
강경모	57	진미경	37	이정원	26	타교			
강진영	11	최민혜	37	이창현	6	김갑철	32		
고혜진	24	최연경	57	이현정	25				
권문혁	57	최재영	15	정주영	1				
권미정	8	최재혁	57	진윤미	1				
김근희	37	최지영	6	홍채문	22				
김동협	57	하미진	62						
김미영	12	허준	6	78회					
김수정	57	현효진	57	권영기	15				
김윤정	31	홍영기	26	김덕영	15				
김주희	53	황준현	9	김도훈	15				
김한바로	15			김병철	15				
김현숙	15	75회		김보연	15				
김혜원	57	이경민	20	김숙경	14				
김혜인	37	허은영	19	김아람	14				
김호찬	57			김정환	9				
김홍식	26	76회		김지은	15				
김희준	6	강민지	39	김창균	9				
목정민	37	강종완	39	김창연	15				
문나연	8	공호연	19	김현미	13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기별 동기회장단 2011년 10월

회	성명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3	박희명		대구 중구 대봉1동 111-1 청운맨션 3-802	053-424-8939
16	홍선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삼호APT 7동 303호	
17	안두홍		대구 북구 침산3동 233-3 동아2차 무지개아파트 206-803	053-351-7989
18	이동식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6 수성보성타운 107-503	053-741-5471
19	김익동	세강병원	대구 달서구 송현동 56-2	053-620-6203
19	서희수		대구 달서구 월성동 500-13 월성우방아파트 102-406	053-634-0644
21	김동성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6 수성보성타운 107-1202	053-751-8883
23	김희철	이현연합의원	대구 서구 평리6동 573-5(2층)	053-555-3397
24	조준승		대구 중구 대봉동 60-10 센트로팰리스 101-1601	053-745-1609
25	오태환		대구 수성구 만촌동 1429-6 메트로팰리스 209-1001	053-741-0510
26	김상하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65-22	053-751-0176
27	이철상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 신세계아파트 12-602	053-766-3666
27	김경수	낙타연합정형외과의원	대구 동구 신천3동 142-3	053-756-3000
28	박진홍	박진홍정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종로1가 41	053-257-2135
29	정준모	경북대학교 건강증진센터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2-1141
29	박영춘		대구 중구 남산4동 황실타운아파트 108-202	053-253-5905
30	김도상	명신의원	대구 달서구 감삼동 206-85	053-557-9191
30	김병화	광제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중구 공평동 88-1	053-422-2431
31	김영명	명인소아청소년과의원	대구 남구 봉덕동 929-4 명인빌딩 3층	053-471-7409
32	장세국		경북 경산시 남산면 전지리 1-4 플라인밸리 4호	053-851-2188
33	김상철	대구파티마병원 신경외과	대구 동구 신암동 576-31	053-940-7331
33	양의석	양이비인후과의원	경북 영천시 금로동 552-8	054-332-9090
34	이원우	효경G병원 응급의학과	대구 동구 효목2동 629-1	053-746-3232
34	김원재		대구 중구 남산4동 2269-11	053-252-6100
35	장병희		대구 동구 신암2동 1289-23	053-941-7065
35	김상도	경산수요양병원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9-34	053-815-1088
36	권국현	한패밀리병원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54-5	053-763-2000
36	심청택	심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중구 종로1가 41-34	053-254-7272
37	박성호	서부노인전문병원 내과	대구 서구 중리동 1164-8	053-570-7575
37	정성수	정성수산부인과의원	대구 남구 봉덕2동 536-10	053-471-3301
38	김민상	김민상외과의원	대구 북구 산격4동 1429-19	053-941-3893
38	김동택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632
39	곽정식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887
39	안종철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대구 남구 대명5동 317-1	053-628-4020
40	김징균	세강병원	대구 달서구 송현동 56-2	053-620-6223
40	조성룡	대구파티마병원 비뇨기과	대구 동구 신암동 576-31	053-940-7151
41	허영수	영신병원	경북 경산시 옥산동 793	053-819-7000
41	김원호	대구파티마병원 내과	대구 동구 신암동 576-31	053-940-7226
42	김종식	김종식산부인과의원	대구 달서구 두류1동 1227-1	053-624-2266
42	송재권	송이비인후과의원	대구 동구 신암1동 592-2	053-954-7575
43	이광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교 약리학교실	대구 남구 대명동 317-1	053-620-4352
43	이규석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피부과	대구 중구 동산동 194	053-250-7625
44	여형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	053-650-4254
44	배형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 월드수성 E-2602	053-756-5027

※ 각 기별 회장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회	성명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45	이종태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672
45	이종룡	지노메디여성병원	대구 수성구 만촌1동 1356-17	053-757-2000
46	성주경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655
46	강명석	한국방사선과의원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3-1	053-554-0011
47	김영근	김영근소아과	대구 북구 칠성동2가 296-2	053-755-2639
47	전동석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대구 중구 동산동 194	053-250-7222
48	김복연	김복연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990-1	053-753-7588
48	최병렬	서재한마음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34-1	053-585-2669
49	송중원	김&송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8-1 동원빌딩 8층	053-426-5151
49	이종영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5480
50	김상유	호성정형외과의원	대구 서구 평리5동 1493-25	053-555-1011
50	이유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843
51	권일훈	관법의학연구소	대구 중구 삼덕동2가 210-1 진석타워 1308호	053-429-6399
51	장기호	한림외과의원	경북 구미시 황상동 201-1	054-472-5657
52	정태훈	정태훈내과의원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50-9	053-425-5678
52	박동보	대구보훈병원 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000
53	이철	동산의원	경북 영천시 금로동 584-6	054-336-0075
53	이태규	왜관정형외과의원	경북 칠곡군 왜관을 왜관리 220-20	054-974-8811
54	황정환	상주성모병원	경북 상주시 냉림동 350-5	054-530-7705
54	황보근	예일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중구 남산4동 98-3	053-255-4220
55	이명기	로즈마리병원 산부인과	대구 북구 동천동 952-2	053-210-7777
55	김동환	김동환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6-2	053-641-5513
56	이양수	경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315
56	소준현	칠곡연합정신과의원	대구 북구 태전동 993-9	053-323-5831
57	이양일	나사렛연합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2 그랜드엠타워 6층	053-621-5800
57	박태인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906
58	장덕진	그린비뇨기과의원	대구 남구 대명동 2567-8	053-623-6686
58	이정훈	가톨릭안과의원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7-17	053-792-1200
59	박용진	진스마음클리닉(가족사랑정신과)	대구 중구 덕산동 128-20 3층	053-422-7901
59	관범찬	영천제일내과의원	경북 영천시 완산동 994-317	054-337-7007
60	송효철	밝은안과의원	경북 구미시 원평2동 106-17	054-455-9559
60	김태권	대구우리들병원 영상의학과	대구 중구 동인동2가 50-3	053-212-3000
61	김병준	쉬즈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61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742-0100
62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63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64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흉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65	김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65	김병익	닥터김메디코스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66	조민현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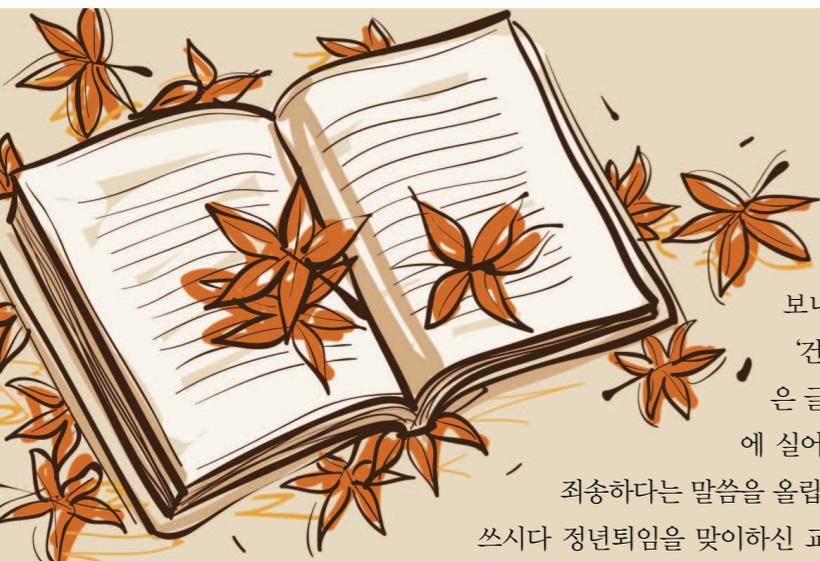
동창회보 104호 원고 모집

동창회보 104호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는 kpmedal@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 지부소식과 기별소식은 행사내용과 함께 관련 사진, 제공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 회원 문예는 가급적 1~2쪽 내외로 사진(본인 사진도 함께 첨부)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편집후기

지부 및 동기회 소식과 행사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기본'이라는 좋은 글을 보내주셨지만 지면 제약상 이번 호에 실어드리지 못한 임정규(31회) 선생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평생을 후진양성을 위해 애쓰시다 정년퇴임을 맞이하신 교수님들을 자세히 조명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102호를 봄에 발행하고, 103호는 여름 휴가지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기획-편집 팀의 손발이 잘 맞지 않아 이제야 편집을 마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소식지 만드는 일이 손에 잡힐 듯합니다. 다음 호에도 많은 소식과 동정이 실리기를 바라며 투고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부 및 동기회 소식을 보내실 때는 행사 관련 사진을 꼭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서너 줄 정도의 짧은 동정란은 반드시 실어드리니 크고 작은 소식 함께 많이 보내주세요.

셋째, 지면 제약상 회원 문예는 가급적 1쪽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항상 신선한 조언을 해주시는 편집자문 정만진 선생님, 변영우 동창회장님, 윤경철 조직이사님, 편집기획사 이포럼 대표님과 이혜미씨, 동창회 박은미 실장께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공보이사 **김인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장	변영우	011-523-9960
수석부회장	지용철(43회)	053)630-6271
부회장(부산)	박형규(36회)	051)243-2515
부회장(재미)	이수광(33회)	815-741-9467
부회장(서울)	황보경(45회)	031)390-1300
부회장(학내)	백운이(44회)	053)420-5733
	유완식(45회)	053)200-3001
부회장	최영욱(45회)	053)470-1000
	이원길(45회)	053)420-5292
	이창(46회)	053)746-3232
	신순희(47회)	053)783-3603
	유영구(47회)	053)742-9690
재무이사	박문흠(50회)	053)561-5665
공보이사	김인겸(54회)	053)420-4833
섭외이사	강인구(51회)	053)794-9400
사업이사	김원섭(48회)	053)782-4008
총무이사	박태인(57회)	053)420-4854
조직이사	윤경철(54회)	053)560-7575
학술이사	이덕희(57회)	053)420-4866
정보이사	손효돈(54회)	053)588-9666
장학이사	안기영(50회)	053)422-6222
정책이사	정제명(42회)	053)420-6404
	박진석(45회)	053)566-2488
	정만진(45회)	010-3506-6427
	김인택(46회)	053)420-5814
	김장희(47회)	054)749-4382
	이유철(50회)	053)420-4843
	조병채(52회)	053)420-5691
	김시오(53회)	053)420-5875
	정호영(53회)	053)420-5620
	이양수(56회)	053)420-5315
	정병룡(58회)	053)573-2121
	제석준(61회)	053)255-8333
감사	김완섭(40회)	053)357-8731
	김철수(42회)	053)252-5389
경대이사	서장수(49회)	053)420-5293
계대이사	민병우(52회)	053)250-7267
영대이사	이형우(50회)	053)620-3839
파티마이사	송도영(53회)	053)940-7269
가톨릭이사	김지연(56회)	053)650-4268

동창회비 송금 안내

2011년도 경북의대 동창회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납부하신 동창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개원회원 : 50,000원
- 근무 및 수련회원 : 40,000원
- 대구 외 기타지역 개원회원 : 40,000원

경북의대 동창회비 온라인 송금

대구은행 054-10-004585 예금주 : 박문흠(경북의대 동창회)

문의처 : 경북의대 동창회 사무실

전화 : (053)422-5114, 420-4981

팩스 : (053)424-0799

송금하신 후 동창회 사무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송금

송금 온라인 계좌는 대구은행 149-04-000196-5

예금주는 경북의대 동창회입니다.

장학기금 송금에 대한 문의는

동창회 사무실 (053)422-5114로 연락 바랍니다.

회무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101 경북의대 본관 1층

동창회 사무실(우 : 700-442)

실장 : 박은미

☎ (053)422-5114, 420-4981 / FAX. (053)424-0799

휴대전화 : 010-8986-2550

e-mail : kpmedal@hanmail.net / medal@knu.ac.kr

경북의대 동창회 홈페이지 주소

www.kpmedal.co.kr

회원 활동사항 및 동문들의 근황을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동창회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부 또는 기별 홈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동창회 홈페이지에 링크하겠습니다.

정보이사 손효돈 : obgysohn@hanmail.net

제23회

경북의대동창회 등반대회

제23회 경북의대 동창회 등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선후배 동문들이 모여 같이 느끼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2011년 10월 23일(일요일)

장소 : 청룡산 일대

신청 : 김원섭 사업이사(053-782-4008),
박은미 실장(053-422-5114)

주최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동창회



➔ 코스

A코스 : 4시간~4시간 30분 소요

B코스 : 2시간 30분 소요

C코스 : 1시간 소요